







CDI세미나 2011-09

제1차 사회적 경제 연구회 워크숍

#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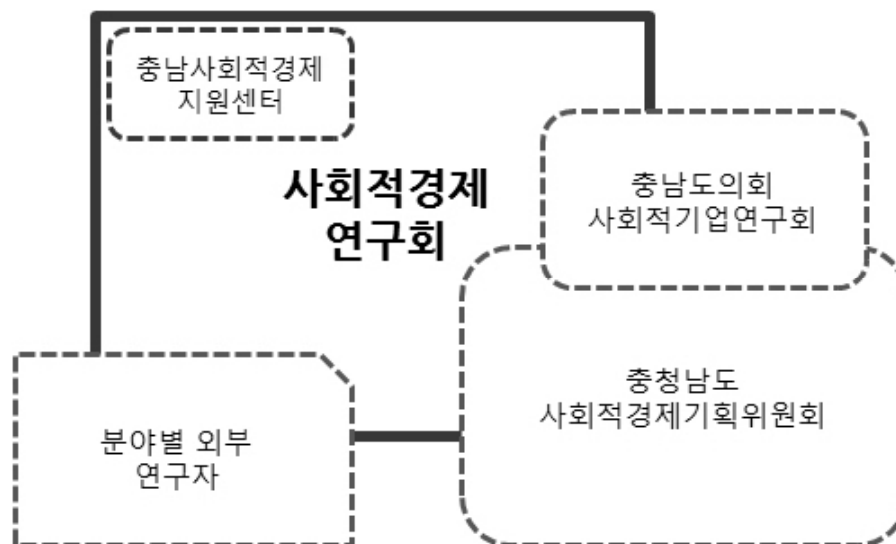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연구회」 소개

## 1. 연구회목적

-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 － 충남 사회적경제의 실태 분석
  - － 충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과제 및 전략 모색

## 2. 기능과 구성(안)

- 사회적경제연구회의 기능(위치)
  - － 사회적경제연구를 중심으로 충남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기반 강화



- 연구회 구성
  - － 원내 : 원장님, 송두범, 임준홍, 김양중, 김종수, 고승희, 이관률, 허남혁, 여형범, 문정환 외

－ 원외 : 원외 전문가

이 름	소속 및 전문분야	이메일	전화번호
박영송	충청남도의회	ysong71@hanmail.net	
이은애	씨즈	aeunle@hanmail.net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poolppuri@gmail.com	
김성훈	민들레의료생협	tjlets@hanmail.net	
서정민	지역재단	jmsuh@krdf.or.kr	
박상우	홍성풀무생협	chamngo@empal.com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	jseeun@cnu.ac.kr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	rieudm@cnu.ac.kr	
이정만	공주대 교수(행정학)	leejm21@kongju.ac.kr	
김혜원	교원대 교수(경제학)	hwkim@knue.ac.kr	
추 욱	충남도 사회적경제계장	hopechuuk@korea.kr	
임호범	금강일보	comst2005@hanmail.net	
김민숙	씨즈	min@theseeds.asia	
명경화	씨즈	myoung@theseeds.asia	

### 3. 개최시기

○ 월 1~2회 정도

- － 5월 까지 : 공동학습,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생태계분석) 분석
- － 6월 이후 : 토론을 통한 활성화 방안 제시

〈표〉 연구회 워크숍 개최(안)

구분	일정	논의 내용	전문가 초청 발표자	비고
사회적 경제의 이해	3월 25일	－ 사회적경제의 이해 (역사와 개념) － 사회적경제의 대상과 유형	김신양(성공회대 교수)	기초학습 및 연구네트워 크 구축
	4월 1일	－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 －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김신양(성공회대 교수) 이은애(씨즈 혁신사업단장)	"
	4월 15일	－ 스웨덴의 사회적 경제 －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	김민숙(씨즈 연구원) 김종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실태 분석	5월	－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틀 － 충남의 사회적경제 실태(생태 계) 분석 내용과 방법 결정	최혁진(원주의료생협 전문 이사)	"
	5월	－ 실태분석 － 활성화 방안 틀 검토 (활성화 기본방향)	연구회 토론	"

\* 5월 이후는 연구회 회의를 통해 결정

# 제1회 「사회적경제연구회」 워크숍 계획

## 1. 개요

- 일시: 2011년 3월25(금) 14시~16시 30분
- 장소 :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1층)

## 2. 목적

-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현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 3. 주요내용

- 주제발표 : 다른경제의 희망: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민중경제
  - 김신양(성공회대 교수)
  - 사회적경제의 개념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역사, 개념, 이론적 근거)
  - 사회적경제 왜 필요한가? 특히, 충남
  - 사회적경제 실체는 있는가(대상과 유형, 생태계 구성요소 등)
- 토론
  - 연구회 회원 등 참석자 전원

#### 4. 행사일정

시 간		소요 시간 (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4:00	14:05	5	◆ 개회 - 원장님 인사말	사회: 김종수
14:05	14:10	5	◆ 연구회 소개	송두범
14:10	15:00	50	◆ 발제자 발표	
15:00	15:10	10	◆ 휴 식	
15:10	16:10	60	◆ 종합토론 및 정리	
16:10	16:30	20	◆ 연구회 운영에 대한 자유토론 - 운영방향 및 운영진 선정 - 제2회 연구회 주제 선정 등	

#### 5. 담당자 연락처

- 김종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 041) 840-1211,
  - jskim@cdi.re.kr / srevo21@naver.com

# [ 목 차 ]

## 〈발표원고〉

- 다른경제의 희망: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민중경제 ..... 7

## 〈참고자료〉

- 사회적경제의 변천 ..... 27
-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원고) ..... 29
- SE 역사적 개념의 변화 ..... 45
-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 및 전망 ..... 47
- 기업의 지배구조 ..... 71
- The Social economy: The worldwide making of a third sector .....76





# 다른경제의 희망 :

사회적경제, 연대의 경제, 민중경제

2011년 3월

김신양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지역개발과 사회적기업

## I.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Economie solidaire  
Economia popular

## Ch I. 사회적경제-개념

### 1. 정의방식

- 좁은 의미: 법적지위 & 운영원리에 따른 정의
  - 20세기 들어 경제부문으로 축소된 영역
- 넓은 의미(역사적 접근): 기존 경제학 및 경제활동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 사상, 실천
  - 기존 정치경제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학문(19C)
  - 연대의 경제, 민중경제 등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대안경제사상 및 실천활동(20C 후반)

### 1. 좁은 의미의 사회적경제

- 법적지위: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 재단)
  - 프랑스 RECMA지가 중심
  -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재단을 포함(1989)
- 운영원리: 사회적경제가 포괄하는 기업 및 조직의 공통점
  - 자끄 드푸르니교수의 제안(1992)으로 왈롱지방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채택 후 보편적으로 인정

## ■ 운영원리에 따른 정의

- 경제를 제한적인 요구와 제한적인 자원 사이의 결정이라는 경제학으로서의 형식적인 관점이 아닌 구체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라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정의
  -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이나 지역사회에의 봉사
  - 자율적 운영
  -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 잉여나 소득의 분배에서 자본에 대한 인간과 노동의 우위
- ⇒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사한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직으로 개인의 이익을 공동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것이 핵심

## 2. 다양한 사회적경제의 정의

### ■ 앙리 데로쉬(Henri Desroche 1983)

-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 이 외에 노동자 참여 기업, 지자체와의 파트너관계에 있는 복합기업, 일정정도의 자주관리 체계를 갖는 공기업, 노조와의 공조관계에 있는 사기업까지 포함
- 약점 : 법적인 지위만을 고려

## ■ 끌로드 비에네(Claude Vienney 1994)

첫째. 사회적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나 기업으로 이루어짐

둘째. 이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를 잇는 기본적인 규칙 : 사람들의 집단에 관계된 규칙(평등), 참여자와 기업간의 관계에 관한 규칙(기업 활동의 결정적인 요소), 기업과 참여자간의 관계에 관한 규칙(이용에 따른 성과의 배분), 기업이나 조직에 관한 규칙(집단적인 소유)

약점 : 결사체를 배제하며 협동조합기업을 사회적 경제의 전형으로 삼고, 따라서 사회적 경제를 시장경제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

## Ch II. 사회적 경제-사상과 실천

### 1. 선구자들의 사상

#### ■ 결사체의 이상

-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을 규합하는 다양한 규모의 구조, 조직 => 조직 방식이자 이념

➢ 오웬(R. Owen) : 노동자들의 정치, 사회적 권리 쟁취를 위한 활동 및 노동과 생산공동체의 실험. 노동시간 단축 캠페인, 노동조합 조직에 기여

“협동이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반대하는 플라톤과 토마스모어의 전통을 잇는 공산주의이다”

➤ 생시몽(Saint-Simon) : 시민의 사회화 수단

“결사체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이상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 푸리에(Fourier): 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인 환경을 바꾸는 수단

“결사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인류의 모든 경제적, 정신적 힘을 모으는 것. 정서적이고 지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 공동의 행동을 위하여 모이는 것”

➤ 뷔세(Buchez): 노동자생산결사체(노동자협동조합의 기원)

“노동자생산결사체를 통해 저기능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가능하게 하고, 장인들이 판매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노동자들의 고용안전 및 협동 추구

➤ 밀(J. S. Mill): 결사체를 통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임금노동관계의 종식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사고

“결사체가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전통적 관계를 대신할 것이다”

## 2. 사회적경제의 조건: 필요의 조건과 집단적 정체성(운명공동체)

- ◆ 19세기: 막 태동한 자본주의의 급속한 진전으로 야만적인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농민, 노동자, 장인이 불평등과 탄압에 맞서 조직. 당시 노동계층의 기본적 욕구인 교육, 보건, 신용대출, 음식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

- ⇒ 빈곤 및 탄압 등의 사회적 문제가 집단적 의미를 가짐
- ⇒ 동일한 삶의 조건이 노동계층의 '집단적 정체성' 형성

### ◆ 현대

-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근간이 되었던 지역, 종교, 가족의 붕괴
  - 사회적 문제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져 빈곤 및 탄압뿐 아니라 가정폭력, 범죄, 교육에의 접근, 고립 및 소외 등의 문제로 확산
  - 사회적 경제 운동은 사회적 결속의 구축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전망을 가지고 공통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으로 발전
- ⇒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믿음 회복

### 3. 사회적경제의 조건: 사회개혁의 유토피아

#### ■ 저항과 협동을 통한 자유의 획득

- 빈곤 및 불평등, 탄압의 현실에 저항하고자 협동  
→ 정체성 확인 → 보다 인간적인 경제와 정치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유토피아 구상
-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는데 필요하며, 외적인 구속이 아닌 교육을 통해 형성

예) 19세기 캐나다 ‘노동자상호공제회사’의 경험:  
단순한 사회복지를 위한 경제조직을 넘어 노동자공동체 내 사회관계 강화

“모든 이들은 서로 돕고 서로 연대한다. 우리는 운명공동체이다”

## Ch III. 다른경제와 시민사회 – 세계화의 두 흐름

### 1. 한계에 이른 자본주의 모델

- ◆ 경제외적인 영역에서 양산하는 비용문제와 탈기능
  - 기존의 경제성과를 허물고 사회적 합의 위협
- ◆ 고질적 실업과 사회적 분리주의
  - 구조적 실업과 기술적 실업으로 복지국가 잠식
  -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생산주체로서의 인간의 유용성 쇠퇴

## ◆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이론

- 불가능한 완전한 경쟁 전제
- 발전의 질적인 측면 도외시
- 양극단의 대안 제시: 투자 or 소비, 보호주의 or 자유주의

⇒ 사회의 종합적인 기획 속에 경제를 통합하는 사고방식 필요

⇒ 시장중심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 필요

## 2. 세계화의 논리

-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 또는 금융의 논리로 주도
- 시장을 인간관계의 일반적 양식으로 확장
  -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모든 사회활동 영역에 적용
- 민주적 조절양식 부정
  - 세계금융기관은 유엔에 속하지만 그들 자체 조직 외 어떤 이에게도, 어떤 조직에게도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
  - 민주주의에 의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전문가'에 의존



- 개발의 이름으로 환경파괴 및 인권유린

⇒ 새로운 개발모델 필요

- 민주주의 수호 명분으로 전쟁 발발

- 사회적 권리 위협

- 최저생활보장권 -> 근로복지(workfare)
- 노동권 -> 노동유연화

⇒ 모든 이들을 위한 권리존중을 중심으로 세계시민운동 형성

### 3. 다른(대안적) 세계화의 흐름

- 저항운동의 시작

- 1999년 시애틀에서 반세계화운동 결집, 국제금융기구에 도전장
- 이념의 차이와 부문운동의 차이를 넘어 세계시민사회운동의 결집

- 저항에서 대안으로

- 2002년 뱌르토 알레그르에서 세계사회포럼 개최
- 전세계 국가로 확산
- 세계시민운동형성
- 참여민주주의의 실험, 다른세계화를 위한 다른경제 전략(연대의 경제) 채택

#### 4. 세계사회포럼과 연대의 경제

- 연대의 경제는 경제(영역)와 사회(영역)간의 관계와 연관성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하는 전략을 겨냥하는 이념
- 세계사회포럼은 전세계적 수준의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컨셉 또는 과정
  - 특정한 조직도, 특정한 운동도, 또 연합도 아닌 자유로운 '공간'
  - 운동과 다양한 사회프로젝트가 나눔의 정신에 기반하여 표현됨
  - 지역, 대륙, 전세계 차원에서 적용가능한 행동계획 및 비전을 정의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

### Ch IV. 다양한 형태의 대안경제 – 새로운 사상의 발흥

- 새로운 개념의 등장
  - 유럽의 경우 70년대부터 결사체를 중심으로 사회적배제에 맞선 사회적기업의 등장과 더불어 '연대의 경제' 등장
  - 남미의 경우 80년대부터 노동자, 농민집단을 중심으로 빈곤극복을 위한 자구적 '민중경제' 등장
  -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중심의 경제조직으로 축소
  - 연대의 경제, 민중경제의 등장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 제기

## ■ 사회적경제의 위기

- 제도에의 안주와 시민사회와의 단절,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속화로 인한 사업의 위기로 딜레마에 빠진 낡은 개념
- ‘사회적’ 의미를 가졌던 ‘공동소유’의 원칙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특정집단의 의미로 제한됨

⇒ 세계화로 인한 도전에 직면

## ■ 사회적경제의 쇄신과 통합

-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부응하며 ‘사회적소유’로 지평 확장
- 유럽, 북미 : 결사체 중심의 연대의 경제와 결합하며 ‘사회적연대의 경제’로 통합
- 남미 : 자발성에 기초한 민중경제와 결합하며 민중적 연대의 경제로 통합
- 동아시아 :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개념 혼재
- 아프리카 : 마이크로크레딧을 중심으로 한 연대의 경제(비공식적 성격)

⇒ 사회적경제, 연대의경제는 다른세계화의 이념으로 존재

## 1. 대안경제 사상의 이론적 토대

### ■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발견

- 경제의 의미를 실질적(substantive) 의미와 형식적(formal) 의미로 구분
- 제도화된 과정으로서의 경제 -> 현대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자율화는 정치적 계획임을 보여줌  
“시장은 자연의 적자가 아니라 정치의 서자다”
- 경제의 통합 방식에는 호혜(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교환(Exchange)이 존재하며 각각의 원칙은 적합한 제도를 전제

### ■ 실질적 의미의 경제

- 자연과 인간에 생계 의존 ->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 ‘경제’란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
- ⇒ 인간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연구 = 실질적 의미로서의 경제에 대한 연구

### ■ 형식적 의미의 경제

- 수단과 목적의 관계 : 수단의 부족이라는 선택의 상황에서 합리적 행동에 의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행위
-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을 전제
- ⇒ 가능한 수단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 추구 -> 이윤의 극대화로 발전

## ■ 경제의 통합 형태

- 호혜성 : 대칭적 집단의 상관관계 지점 간의 움직임.
- 재분배 : 중앙으로의 소유움직임과 중앙으로부터의 이동
- 교환 : 시장제도 하 주고받는 움직임

## ■ 설명

- 호혜성은 재분배와 교환을 종속된 방법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통해 최상의 힘을 발휘
  - 재분배는 모든 수준의 그룹을 통합
  - 교환은 가격책정 시장체제에서 가능. 그 외부에서는 경제분석으로서의 관련성 상실
- ⇒ 각각의 통합형태는 경제의 발전단계를 의미하지 않음

## ■ 민주주의, 경제, 다원주의

- 파시즘 : 민주주의를 철폐하고 부동의 위계구조화된 경제체제를 위해 사회를 조직하고자 하는 목적
  - 과거 공산주의체제 :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로 넓히려는 목적. 권리와 대의민주주의를 경시하며 생산수단의 소유의 변화를 경제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오류
  - 자본주의 체제 : 경제의 실질적 의미의 배제 -> 경제=시장경제. 시장만능 = 자가조절하는 시장
  - 다원주의 : 경제란 인간이 다른 인간과 자연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괄. 어떤 형태의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을 규정하는 사회, 문화, 정치적 규칙 속에 경제를 복속
- ⇒ 플라니의 분석은 윤리적, 정치적 계획으로서의 대안경제 사상의 토대 형성

## 2. 연대의 경제

### ■ 정의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활동

### ■ 기원

19세기 초 르루(Leroux)의 연대에 기반한 노동자결사주의 중심의 우애의 경제

### ■ 배경

- '영광의 30년' 이후 오일쇼크와 더불어 시작된 경제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
- 68년 5월혁명 이후 형성된 세대의 대안적 삶 모색
- 사회적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근린서비스' 개발, 자활지원을 위한 노동통합사회적기업, 연대금융 및 공정무역 등 새로운 시도의 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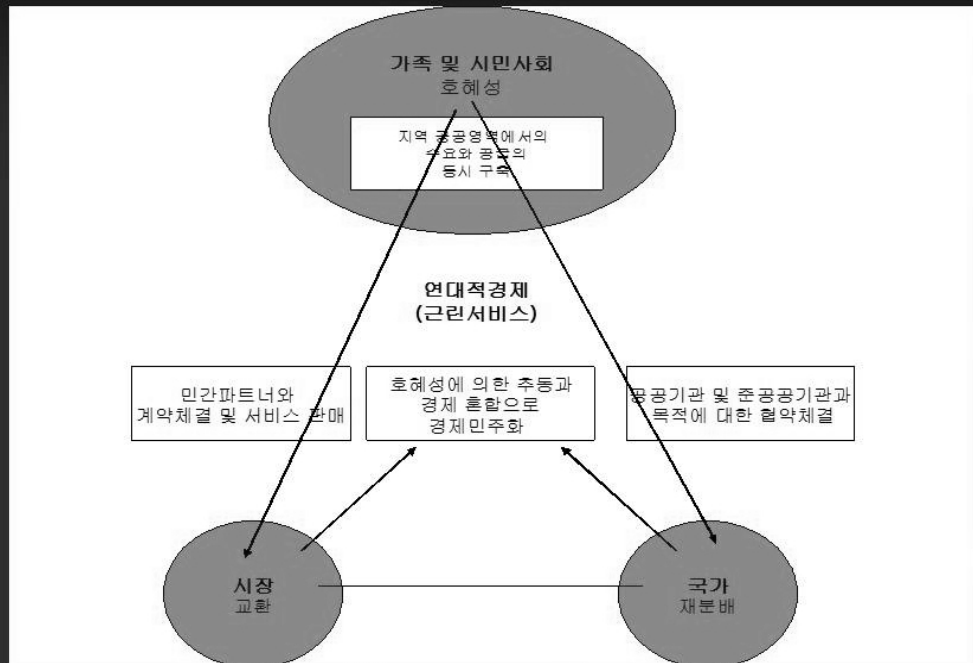
### ■ 운영원리

- 플라니의 경제통합원칙에 근거, 시민사회의 비시장비화폐 자원(호혜성), 비시장자원(재분배), 시장자원(교환)을 혼합
- 호혜성의 추동으로 경제영역에 참여민주주의 도입을 통한 경제민주화 겨냥
- 수요와 공급의 동시 구축

### ■ 연대적 서비스 조직의 특성

- 지역사회에 필요한 욕구 발굴
-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조직하고 이들로 이루어진 의사결정 단위 구성
- 지불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서비스 수요자를 위하여 교환 체계가 아닌 새로운 운영체계 형성
-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동원

## ■ 근린서비스(연대적 서비스) 개발



## 3. 민중경제

### ■ 정의

- 자신의 노동력과 이용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물질적·비물질적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중조직에 의해 개발되는 모든 경제활동 및 사회실천(Icaza & Triba)
- 주로 가난한 지역에 거주하는 민중집단이 결사하여 다양한 방식에 따라 노동이 이루어지는 생산,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아우르는 활동(de França Filho)

### ■ 배경

- 불공정한 국제무역관계 및 강제적 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 인한 시장의 한계
- 과중한 외채부담으로 인한 경제발전의 한계

⇒ 민중의 자구적 방책

- 특성
  - 보통 비공식적인 구조로 존재
  -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호혜적 관계에서 활동의 근거 찾기
- ⇒ 호혜성과 협동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관계의 구축을 통한 생존전략
- 민중경제
  - 고용/피고용 관계 부정(노동력의 상품화 반대)
  - 지역전통이나 공동체관계에 기반
- 비공식경제
  - 고용주가 있으나 임금관계 부재
  - 시장을 모방한 개인활동
  - 시장활동이나 비합법적으로 존재(기업활동에 따른 의무 불이행)

#### 4. 대안경제와 경제의 복합성

- 민주적 연대성을 통한 재분배와 호혜성의 시너지효과
  - 호혜적 형태 :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공동선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발적인 사회관계
  - 재분배 형태 : 공권력에 의하여 사회결속력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규범과 서비스



## ■ 재분배정책에 의한 호혜성의 확장

- 인간의 해방을 위한 사회적 실천은 진정한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인과 집단의 실천이 법적 틀과 정책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발전할 때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음

⇒ 공공부문(국가)과 시민사회간의 협력의 필요성

## 5. 잠정적 결론

### ■ 대안경제와 국가

- 사회개혁 프로젝트로서 대안경제는 국가(공공부문)와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시기
- 복지 확대 및 강화를 통한 사회불평등 완화
- 사회국가 모델의 발전으로 정치공동체에 대한 신뢰 회복

### ■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민주적 조절양식

- 참여민주주의 및 여론민주주의의 확대
- 국가/시장 중심의 이분법 ->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균형으로 경제 민주화

## Ch V. 사회적경제와 공공정책

### 1. 경제, 사회, 민주주의

- 과거의 사회경제적 타협
  - 시장과 국가의 분리, 보완관계
  - 시장만이 유일한 부의 원동력이라는 논리에 기반
  - 사회연대는 시장의 성과에 달려있음
- 사회경제적 위기
  - 복지국가의 위기와 더불어 민주사회 해체
  - 사회정의 및 사회통합을 조직할 새로운 원칙의 부재로 사회불평등 증가
  -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국가의 조직 및 조절양식의 변화 요구
  - 사회의 구성과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 ■ 새로운 보편적 연대 형태의 필요

- 박애적 연대 : 가진 자가 못가진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민의 임무를 행하는 형태
  - 열악한 계층과 특권층 간의 의존적 관계 : 수혜자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채무의식 형성
- 민주적 연대 : 사람들간의 권리의 평등에 기반
  - 자유로운 시민의 자발적인 호혜 관계 : 자주적 조직, 이 해당사자들간의 논의를 통한 상호부조 서비스

### ■ 민주적 연대의 조건

- 호혜성 :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간의 자발적인 사회관계
- 강제성과 재분배 : 불평등을 시정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규범

## 2. 새로운 연대의 형성을 위한 사회변화

### ■ 정치와 경제

- 현대사회의 민주화 과정의 추구는 경제의 민주화를 요구. 이를 위해
- ✓ 공공부문의 조절양식이 변화해야 하고
- ✓ 생산, 교환, 소비, 예금 활동에 민주적 원칙 도입

### ■ 사회적 경제와 제도

- 제도화의 주체: 제도의 변화에 기여 → 사회운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
- 제도화된 조직: 제도의 통제 대상 → 경제조직으로서의 사회적경제
- ⇒ 저항과 창조의 결합



## 사회적경제의 변천

연도	1763년	1830	1900	1914-1918	1929	1938-1945	1945-1973
주요사건	산업혁명	‘사회적경제’	지드, 만국박람회에 ‘사회적경제’ 국제심사위원 보고서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혁명	세계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의미	노동조건악화, 빈곤 및 도시화 등 사회 문제 확산	기존 경제학 쇠신 및 학문의 영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경 제 등장		사회주의 이념 확산			공제조합의 경험 복 지국가 건설에 기여
<-----대안경제사상 및 실천의 등장 & 변성기----->							
연도	1973	1981	1991	1995	1997	2002	2008
주요사건	오일쇼크	뎃저 ‘TINA’ 선언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법’ 도입	반세계화운동	동아시아 금융위기	제1회 세계사회포럼 (브라질 팰르또 알레그르)	미국 Subprimes 사태 및 전세계 경제위기
의미	실업 및 고용 위기 노동의 종말? 복지국가 위기	신자유주의 정책 본 격화	유럽의 사회적기업 법제화 주도	세계시민사회등장	윌페어와 사회적기 업에 대한 관심 증 가	다른 세계화운동의 발전과 연대의 경제 의 만남	다른 세계화를 다른 경제의 구상화
<-----사회적기업 등장 및 전세계적 확산----->				<-연대의경제를 통한 사회적경제 부흥기->			



#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

김신양(성공회대 교수)

## I. 서론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는 최초로 그 개념이 등장한 이후 역사의 발전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해왔을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를 표방하거나 이를 주장하는 집단 내에서도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아주 추상적인 수준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이상이 무엇이며 그 이상은 어떻게 현실로 드러나는가를 논하기 이전에 사회적경제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대한 통시적 접근과 근래에 생긴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작업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단지 정확한 사회적경제의 개념만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의미가 변했다는 것은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용어가 사용되어온 분야와 의미하는 내용 자체가 변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축을 따라 사회적경제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목적으로 논의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경제의 이상이 무엇인가를 도출할 수 있고, 그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 II. 사회적경제의 의미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안경제의 사상의 하나인가, 아니면 자본주의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의 운영원리인가? 사회적경제는 학문적 전통을 가지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경제학이라 할 수 있는가? 또는 사회적경제는 경제학의 한 분야인가, 아니면 경제학과는 다른 학문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

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는 학문적 영역에서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다가 20세기에 들어 경제부문으로 변화(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에 들어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는 일반(자본주의)기업과 다른 운영방식을 가지는 부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및 임노동사회의 종말을 예고하면서 사회적경제는 새로이 등장한 연대의경제 및 민중경제 등 새로운 사회적 경제 개념과 공존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거나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 1. 사회적경제 개념의 등장

사회적경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학문의 영역에서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다. 1830년 뒤누와이에(C. Dunoyer)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어(Gueslin, 1998) 이후 지드(Gide)나 왈라스(Walras)에 의하여 발전되었으며, 19세기 말까지 사회적경제는 학문의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학문의 영역에서 등장한 이유는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초기 자본주의가 그 야만성으로 인하여 다수의 민중이 극심한 노동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으며 빈곤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드가 말했듯 당시의 지배적인 경제학은 부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지만 “민중의 고통과 그것을 치료할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Gide, 1990) 때문에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새로운 사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초기 사회적경제를 학문으로 체계화한 왈라스는 『사회적경제 연구』(1896)에서 보듯, 사회적경제는 당시까지 은폐되어 오다가 산업혁명에 의하여 주요하게 대두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 정치사회경제라 할 수 있다. 왈라스가 구상한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이익과 정의를 화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점에서 왈라스는 모든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에 반대한다.

그런데 실천적 사상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선구자인 오웬이나 생시몽, 푸리에 등은 당시 결사체주의(associationnisme)자였으며, 그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자결사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야만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자본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다. 이들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사상을 형성한 이들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경제학회를 설립한 르플레(Le Play)나 공제조합모델을 권장한 라이파이젠(Raiffeisen)은 기독교사회주의자였고, 영국 로치데일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드는 연대주의자였으며, 사적소유를 부정하고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시민-생산자의 주권을 보장하는 신용대출제도를 주장한 프루동과 크로포트킨은 무정부주의자였다(Bidet, 2005).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결사체에 의한 임금노동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밀(Mill)과 대중결사체를 지지한 왈라스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로 간주된다. 이렇듯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사상의 교차로에 위치하였으며 각기 주장하는 내용 또한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을 사회적경제의 선구자라 하는 이유는 결사체(혹은 노동자결사체)의 이상을 가졌으며, 소유, 이윤, 사회불평등, 경쟁 과 같은 시장의 작동메카니즘에 대하여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단일한 사상적 체계를 가지는 학파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공통의 비판의식과 조직방식을 가진 시대의 흐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다는 의미가 현대에 이르러 왜곡되어 해석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의 선구자들은 이념적 성향이 다양하였지만 그 이념을 넘어서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전통을 형성했다고 간주한다. 이는 그들이 사회적경제를 자신의 이념에 따라 자의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적경제를 비판하는 이들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정치색이 다양한 이들이 사회적경제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사회적경제를 자유주의적이라거나(자본주의)체제옹호적이라는 라벨을 붙이곤 한다.

선구자들의 사상과 실천은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의 탄생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협동조합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로치데일의 공정개혁자’ 협동조합은 오웬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며, 생시몽과 푸리에의 자율적인 노동과 생활공동체 모델은 노동자협동조합의 탄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공제조합 조직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라이파이젠은 독일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신용대출과 보험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경제라 지칭하는 것은 이렇듯 노동자결사체주의가 중심이 된 사상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협동조합 및 공제조합 설립의 움직임이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사회적경제의 축소 : 자본주의기업과는 다른 경제활동방식

오늘날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는 방법은 법적지위를 통한 정의와 운영원칙에 의한 정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두 방법을 조합할 때 가장 적합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Defourny, 2006).

첫 번째 방법은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제도 및 법적 형태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접근법은 프랑스, 특히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리뷰(RECMA)’라는 잡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의 셋 또는 네 구성체로 보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하다.

사회적 경제의 특성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은 사회적 경제가 포괄하는 기업 및 조직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핵심적으로는 이 공통점은 활동이 가지는 궁극적 목적의 수준, 그

리고 조직양식의 수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 고유의 특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아래와 같은 주요 원칙은 다양한 원천을 조합하는 간명한 방법이다.

첫째, 궁극적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둘째, 운영(경영)의 자율성

셋째,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넷째, 잉여 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함

궁극적 목적이 봉사인 점으로 보아 사회적 경제의 활동은 구성원, 또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봉사이지 투자된 자본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은 이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활동의 주요동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운영의 자율성은 사회적 경제를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는 주요 요소이다. 사실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경제활동은 일반적으로 모든 결사조직의 역동성의 근거가 되는 넓은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다.

통제에 있어 민주성은 이론적으로 - '1주1표'가 아닌 - '1인 1표'의 규칙이나 적어도 최고의 결기구에서 구성원의 표의 제한으로 표현된다. 실제적인 실천의 다양성을 넘어 이 원칙은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자격 및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일반기업에서처럼 보유한 자본의 정도에 따른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네 번째 원칙은 사회적 경제 기업 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예컨대 자본에 대한 보상의 제한, 배당금의 형태로 노동자나 이용자구성원간의 잉여 배당, 활동의 발전을 위한 수익금 적립,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익금 사용 등.

위의 두 정의에서 보듯 오늘날 사회적경제는 더 이상 사상이나 학문이 아닌 '경제조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드나 왈라스의 기여와 그 것이 학문 영역에 미친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는 학문으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과학의 장을 떠나 구체적인 경제의 영역에 들어가 하나의 섹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사회적경제가 더 이상 '이론적 틀'을 제공하지 못하고 다른 이론적 도구에 의하여 접근되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20세기에 들어 사회적경제는 조직의 확대와 분화를 겪으며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학문의 영역에서 전통이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대안경제사상으로서의 지위 또한 상실하는 시련을 맞보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 마르크시즘의 전파 및 노동조합의 탄생으로 인하여 노동자결사체의 이상을 가진 사회적경제가 더 이상 노동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실천방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 2차 대전 후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수 노동계층 및 그 가족

의 위험이 공제조합이 아닌 국가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었으며,  
셋째, 기술의 발전으로 시장을 통한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노동계층의 생활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자체에 기인한 것으로서 협동조합 진영은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 및 운영원칙이 정립되고 부문별 조직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공제조합진영은 사회보장제도의 정착이후 공공부문의 보조역할을 하며 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과거 사회적경제조직이 노동계층에게 제공하던 사회경제적인 편익의 많은 부분을 국가와 시장이 제공하게 되어 현실적 유용성이 감소하였으며, 마르크시즘과 노동조합의 대두로 노동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과 사상으로서의 위치도 위협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내부 정비의 이유로 결국 사회적경제는 이념과 실천의 측면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상과 실천으로서의 위치에서 자본주의기업과는 다른 운영원칙을 가진 기업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시민사회라는 영역에서도 멀어지고 사회운동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 3. 사회적경제의 쇠퇴와 재탄생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전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사회적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경제위기로 악화된 시장은 노동자를 몰아내고, 시장의 역동성에 의존하던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도 더 이상 늘어나는 실업빈곤층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복지국가 또한 위기를 맞게 된다. 구조적 실업과 사회적배제는 급기야 사회양극화라는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대안을 갈구하던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개념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대륙을 건너 남미에서도 80년대부터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교회,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실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민중경제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경제는 여전히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섹터’로 인식되었고, 경기가 회복되어 시장이 정상화되면 예전처럼 성장이 이루어져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향이 이루어졌으나 국가정책의 대리자로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시장안에서 활동하고 국가에 의존하던 제도화된 협동조합 및 공제조합 또한 시장의 위기로 타격을 입게되어 위기극복의 주체가 아닌 위기의 피해자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져 왔으나 8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정책과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는 더 이상 치료될 수 없는 체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진보진영 내에서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구소비에트의 몰락으로 인하여 사회주의이념 - 엄밀히

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한 국가주의 - 이 더 이상 대안으로 제안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시장도 국가도 아닌, 또는 그 두 부분의 결합도 아닌 무엇에 희망을 걸어야 하나? 유럽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노동자총파업과 실업자운동으로 새로운 사회운동이 탄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제도화된 사회적경제를 비판하는 연대의 경제가 등장했고 국가의 위에 존재하는 국제기구가 강요하는 구조조정과 외채로 경제가 파탄난 남미는 새로운 개발모델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독재와 인종말살전쟁으로 기아에 허덕이던 아프리카에서도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각기 다른 대륙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비공식경제, 민중경제, 연대의 경제, 새로운 사회적경제로 불리는 이 모든 개념은 제도화된 사회적경제를 쇠신하면서도 애초 사회적경제가 가졌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수렴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운동은 21세기에 들어 다른세계화를 위한 이념으로 세계시민사회의 공통분모가 되었다.

### III. 사회적경제의 이상

이제 사회적경제의 이상을 말할 시점이 되었다. 이것을 위해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다. 그러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이상이 무엇인지 얘기하기 이전에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의 이상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를 알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사회적경제가 진정 대안이 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현재의 불완전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 1. 역사의 교훈

우선 전제해야 할 것은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다양하고 역사의 발전에 따라 변해왔으므로 사회적경제의 실체에 온전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적경제는 조직의 법적지위나 운영원리에 의해서만 설명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이념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사회적경제는 기존 경제학이 고려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 빈곤과 사회불평등과 같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에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학문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맥이 끊어지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을 설명하고 해석해주고 의미를 부여해 줄 이론이 사라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 기반하고 자유주의 사상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왔다는 점을 안다면 이론의 부재가 미치는 결과가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사회적경제의 사상적 배경이 다양하고 그 실천 또한 다양할 뿐 아니라 현재 공통적으로 수용되는 정의 또한 없기에 무엇이 사회적경제이고 어떠한 실천이 사회적경제인가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집단과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제안하는 내용 또한 상이하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할 뿐 아니라 그리 걱정할 바도 못된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이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범답안이나 실천의 전형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가 이상이 되기 위해서 그 것을 논의하고 그를 통해 그 이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이다.

## 2. 논의의 출발

그렇다고 모든 논의를 제로에서 출발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지점을 보면서 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경제에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초에 사회적경제가 태동할 시기, 선구자들이 가진 열망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이상이 무엇이었고, 21세기에 이른 현재 세계시민사회가 다른세계화의 이념으로 연대의경제<sup>1)</sup>를 표방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대륙과 국가에 따라 사회적경제가 처한 상황과 인식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적경제가 더 이상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한시적으로 봉합하거나 실업흡수를 위한 대책으로서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 역할로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반세계화운동에서 발전하여 형성된 세계시민사회가 세계사회포럼에서 합의한 것은 저항세력에서 대안세력이 되고자 한 것이고, 그 대안은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아닌 ‘다른세계화(또는 대안적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가

---

1) 넓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는 남미를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인 민중경제와 80년대에 유럽에서 등장하여 남미 및 아프리카로 확산된 연대의 경제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부문화되고 제도화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으나 애초의 사회적 경제의 정신 - 정치경제학의 비판 및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 및 사회개혁프로젝트로서의 사회적경제 - 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경제의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현재 시민사회 진영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경제는 포괄적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이 모든 개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투기자본에 의한 극심한 사회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장유일사상의 지배에 기인하므로 다른 세계화는 다른경제없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 그리하여 연대의 경제가 다른세계화의 이념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인간과 사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한 시장의 운영원리에 의하여 사고된다는 것이므로 다른세계화의 과제는 인간의 관계를 계약관계로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상품으로만 인식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존의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그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즉 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 토대가 되는 제도, 이것이 다른 세계화가 가능할 수 있는 ‘아리안의 실’일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이상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경제의 대안으로 간주하고 어떤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가? 재벌개혁? 경영참여? 사회적기업 설립? 투기자본규제? 논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를 것이고 열거한 제안 중 많은 것들이 논의되거나 실천되어왔다. 그러나 이 각각의 계획이 다른 세계화의 이상을 가지는 많은 이들을 아우르는 공통의 열망이 될 수 있을까? 이 제안들은 실현가능할 뿐 아니라 이상으로 삼기에 충분한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의 이상은 단순히 경제개혁의 과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까지도 상품화가 되며, 금융자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환경이 파괴되고 극단적인 사회적, 남북간의 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대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이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고 또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가능할 것이나 시장적 조절방식에 대한 대안적 조절방식의 토대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사회포럼을 비롯한 다른세계화를 논의하는 장에서 공통으로 수렴되는 안이다. 금융과세를 도입하여 시민활동을 지원할 것을 주장하는 세계적인 조직 ATTAC의 부대표를 역임한 귀스타브 마씨아(G. Massiah)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세계시민운동이 권리존중을 중심으로 대안을 구축한다. 각 사회 및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모델이 인간을 곤경에 빠뜨리고 구조조정이 늘어난다는 자각이 높아졌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와 반대되는 경향은 국제적 권리를 되찾아가는 길이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존중은 모든 이들이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평등하게 수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중요한 것은 공공서비스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어떤 형태로 이를 조직하며, 시장과는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어떻게 다양한 주체가 결합되며,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

적 서비스의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경제, 2005)

그러나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권리 존중은 ‘모든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부’이기도 하지만 ‘국민에 의한 정부’이듯이 권리 존중 또한 ‘모든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기에 적극적인 시민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칼 폴라니(K. Polanyi)가 강조했듯이 민주주의란 단순히 규칙으로 이루어진 체계가 아니라 ‘삶의 이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의 지배로 심화되는 불평등과 삶의 환경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시장의 논리로 무너져 가는 사회적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느때 보다도 적극적인 시민정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단지 나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식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권리 또한 지켜주어야 한다는 의식, 즉 ‘호혜적 연대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호혜적 연대성은 시민사회의 원칙이기에 다른 세계화의 이상은 세계시민사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 3. 변화의 과제는 무엇인가?<sup>2)</sup>

우선 기존의 개발 모델의 실패로 새로운 개발 모델이 요구된다.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강요에 의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아시아 및 남미 국가의 경제위기는 오히려 심화되었고 통제되지 않는 투기자본은 환경파괴 및 생존자체를 위협(북부의 개인가구과산, 남부의 식량난민 발생)하면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복지국가의 후퇴 및 사회적 배제로 인한 극심한 사회불평등은 정치공동체의 기반을 붕괴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존립마저 위협하게 된다. 남부 국가 뿐 아니라 북부국가의 모든 국민의 다수가 사회불평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하였듯이 양극화의 문제는 비단 특정한 사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떤 사회이건 최소한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그 정치 공동체는 존립할 수 없게 된다. 현재의 불평등 문제는 단지 어떻게 일부 빈곤층을 보호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시혜적 차원의 복지서비스의 보장이 아니라 교육, 의료, 주택, 고용 등 제반의 서비스를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소득보장 및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 감소 - 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2)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필자가 2009년 11월에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의미’에서 발췌하였다.

## IV. 사회적경제의 현실

현실의 모순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창조라는 두 갈래 길을 동시에 걸어 온 사회적경제는 근대국가의 사회정책의 토대를 제공하면서 자신은 한걸음 뒤로 물러났다. 위기의 시기에 요청받는 대타와도 같은 존재였다. 모두 그 선수가 등장하여 전세를 역전시키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예컨대 3:0으로 지고 있던 팀이 9회말 투아웃에 모든 주자가 1, 2, 3루에 포진해 있을 때, 타자가 기적적으로 홈런을 날리면 경기는 4:3으로 역전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타로 나온 선수가 비록 홈런을 날린다 해도 만약 주자가 단지 두 명만 진출해 있었다면, 또는 1명만 진출해 있었다면 역전의 드라마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 선수가 친 공은 똑같이 담장을 넘었지만(이대호선수가 홈런을 그렇게 쳤건만 롯데는 우승하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하달까).

사회적경제의 현실을 논하기 이전에 야구에 빗대어 말을 꺼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위기사 요청받은 선수가 역전의 기회를 맞이하여 홈런을 쳐도 지거나 비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주자가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내기 위한 작전을 잘 짜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평소 팀의 전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과 이 작전은 상대방이 이기고 있으나 공지에 몰려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면 현재의 자본주의체제는 공지에 몰려있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굳이 모든 경제지표와 장황한 정세분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미 전세계의 모든 국민이 사회불평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으며, 조절능력을 잃은 시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시작으로 전지구적 위기를 불러일으키며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모아졌다. 아직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그러한 정서가 팽배해있지는 않지만 이미 유럽과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경제, 연대의 경제, 민중경제가 국가정책의 부분, 또는 전체를 관장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것은 어쩌면 2000년대 지금의 상황이 곳곳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유린되고 시민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탄생한 19세기 초와 아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정부 들어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가 탄압받으면서 시민사회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의 이상이 진정한 대안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만한 수준의 정책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그 정책은 바람직할 뿐 아니라 실현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몇 가지 있다.



## 1. 지식인,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조직의 연대

19세기 후반의 지드나 왈라스, 베버의 전통은 학문의 영역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장루이라빌(Jean-Loius Laville)과 사회과학반공리운동인 MAUSS 그룹에 의하여 '연대의 경제'로, 캐나다 퀘벡에서는 '새로운사회적경제'로 불리며 전통적 사회적경제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이념을 정립하고 있다. 다른 학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사회경제학(A. Etzioni, B. Burgenmeier), 경제사회학(R. Swedberg, P. Steiner), 또는 사회적자본(R. Putman)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최근에는 드푸르니(J. Defourny)와 보르자가(C. Borzaga)를 비롯한 유럽사회적기업연구네트워크인 EMES에 의하여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신을 계승하기도 한다(Bidet, 2005).

이렇듯 사회적경제는 학문의 영역에서 새로이 부활하고 있으나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에 비하여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안적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낙후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경제는 관련 연구자도 적고 연구결과 또한 빈곤한 실정이다. 그 것은 아마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식인 집단이 시민사회나 사회운동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대안적 실천을 제안하고 이끌어왔던 것은 현장조직들이며, 이들과 연관된 연구자들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국가정책을 보조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체제 내에서의 부분적인 정책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그 결과 고용 없는 성장을 예견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실업자를 조직하며 사회적인 실천을 주도하던 시민사회단체는 이론의 빈곤과 정책적 지원의 부재로 정부의 주도에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sup>3)</sup>.

19세기 사회적경제가 발흥한 이유는 농민, 노동자, 장인이 착취당하는 상황에서 불평등 및 탄압에 대응하며 의식주 및 교육, 보건, 신용대출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 조직된 것은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의 자발성에 더하여 그들의 실천에 영감을 제공하고 사상적 틀을 제공한 지식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과 남미에서 새로운 사상이 발전하며 대안이 논의되는 것도 80년대부터 다양한 지식인 집단이 현장과 더불어 꾸준히 연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사회적경제연구회가 있으나 그 활동은 미미하며, 이들 외 다른 집단의 연구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 진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식인과 시민사회의 연대에 더하여 고민해야 할 것은 시민사회와 협동조합진영을 비롯한 기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대이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내 생활협동조합연합조직 및 연구소가 회원으로 있지만 이들과의 연대는 회의를 함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조직

3)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필자가 발표한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단계(2009)'를 참조할 것.

적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동의 정책에 기반한 연대활동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질 자원이 취약한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 협동조합의 지원 및 그들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거대한 협동조합연합회가 교육과 운영을 지원했기 때문이며, 프랑스의 공동체이익협동조합회사도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CGSCOP)가 초기에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며, 설립이후에는 외부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연대의 경제로 대안경제의 희망이 된 브라질의 경우 80년대부터 노동조합과 대학,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 실천에 머문 민중경제조직에 기술적 지원하며 전국적 수준의 연대체를 만들고 정부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사상과 실천은 함께 발전하기에 현장과 연구는 공동운명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현장의 활동가들은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현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전달해주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현장에 기반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을 생산하여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현장의 활동가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사상과 연구를 검증하여 공허한 이론이 되지 않고 현실적 힘을 가지는 이론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2. 사회적경제활동을 사회적권리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90년대 말,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의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조직적 기반을 갖춘 실업극복활동은 초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담론, 항시적인 공공근로의 보장으로 실업급여제도의 도입을 구상했고, 자활지원사업과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고용복지정책을 이끌어 내었을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바우처제도의 도입 등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짧은 시간에 실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자리창출이 마치 시민사회고유의 업무인양, 또는 사회적기업설립이 사회적경제활동의 전부인양 거기에만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를 경제의 영역에만 한정시키며 사회적경제의 과제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유지 및 발전과 등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그 것은 고용악화와 소득불평등으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장의 한계에 대항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노동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공동체관계를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다른 세계화의 기본방향인 권리확보운동과도 상응한다. 사회적기업의 존재이유는 단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제공,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확보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논의의 중심은 재정안정방안이나 창출한 일자리의 수가 아닌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누구를 위한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노동조합(trade-unions)운동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그것은 협동조합 이론가이기도 한 웹(Webb)부처의 노동조합이론에 근거한다. 이들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법적기구, 새로운 행동의 원칙, 새로운 희생과 연대의 동기, 새로운 성장 및 투쟁의 도구”가 생기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은 “새로운 권리이며, 노동자의 권리이며, 새로운 정신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하여 개인의 운명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개인의 희생과 연대를 통하여 집단의 존재를 깨닫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가 구분되지 않도록 한다”(Mauss, 1899)고 했다.

영국의 노동조합에 대한 이론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노동조합은 단지 노동자들의 이익을 실현하게 해 줄 조직적 틀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노동자의 권리라는 점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파업을 통한 임금인상과 같은 경제적인 욕구를 넘어 새로운 의식이 형성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다. 또한 마르셀 모스(Mauss)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단지 경제조직과 저항조직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토대로서 현재는 저항의 틀이지만 미래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장치이며,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사회주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1899)로 간주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으로 대변되는 사회적경제운동은 새로운 전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사회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제반의 사회적 권리보장 운동의 전망을 가지며 새로운 경제활동의 실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반의 사회적 권리란 경제활동을 시도할 수 있는 권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교육, 문화, 보건, 주거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구상하며,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실천은 노동운동 및 시민운동과 조우하며 연대와 협력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 경제활동의 성공만으로는 사회적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도화된 사회적경제의 경험에서 보지 않았는가? 생존전략은 필요하나 살아남는 것이 존재이유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 남는 가이며, 개별 조직이 아닌 사회적경제라는 이념과 사상이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또 누군가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역사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가 이어져 온 것은 그 정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세기 초 현재는 사회적경제의 정신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요구받고 있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시장에만 머물지 않을 것을 선구자들이 당부하고 있다.

## < 참고문헌 >

김신양(2005), 『다른 경제』, 실업극복국민재단.

김신양(2009),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의미」,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워크숍 발표자료.

김신양 · 장원봉(2009), 『사회적경제의 이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사회투자지원재단.

노대명 · 김신양 · 장원봉 · 김문길(2010),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idet, E. (2005), "L'économie sociale à la française", Economie et Humanisme.

Gueslin, A. (1998), *L'invention de l'économie sociale*, ECONOMICQA.

Gide, C. (1900), Economie sociale, Rapport du Jury international, Exposition Universelle de 1900.

Mauss, M. (1899), "L'action socialiste", *Ecrits politiques*(1997), Fay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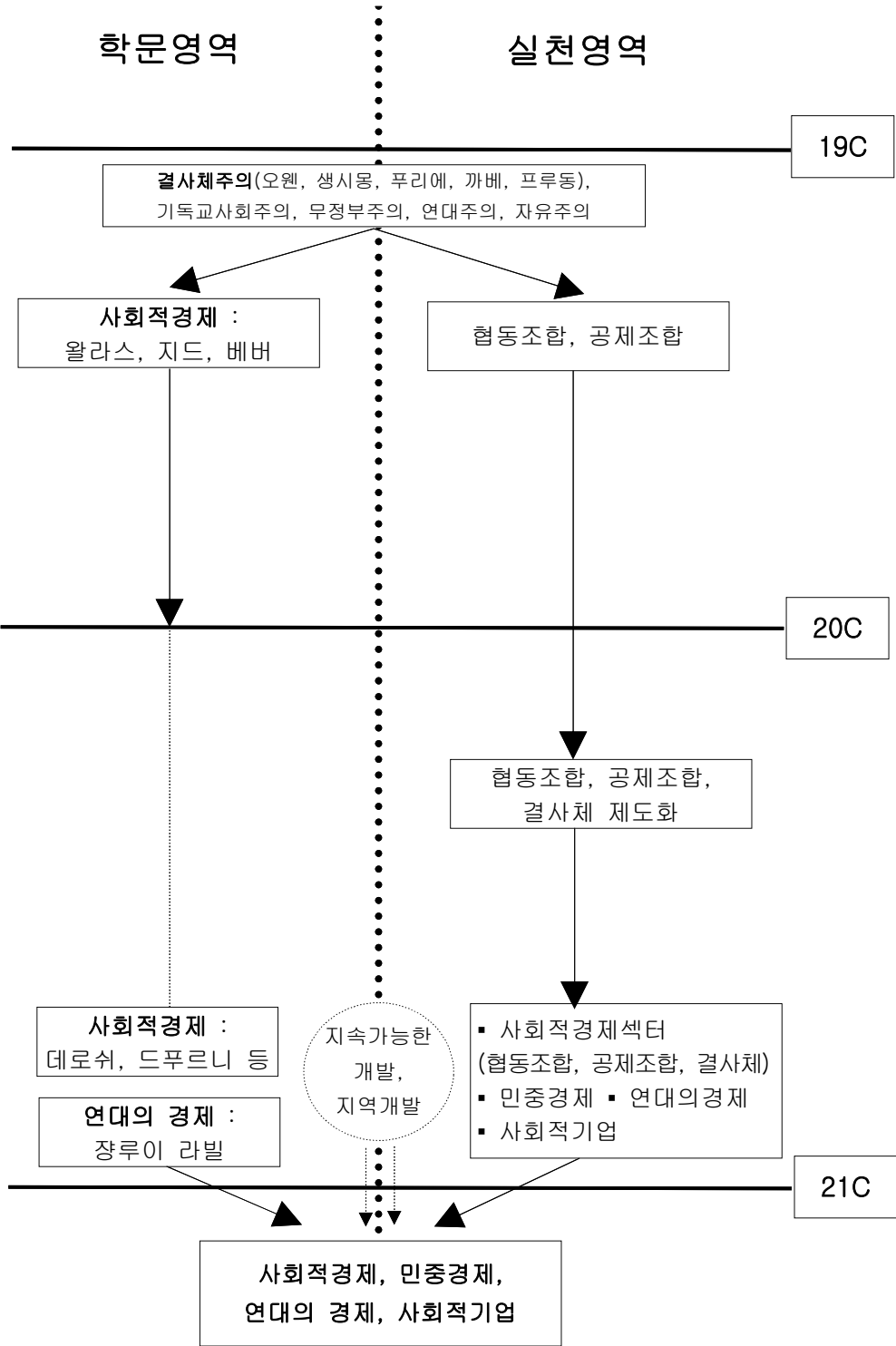
Walras, L. (1896), *Etudes d'économie sociale*, Lausanne, Paris.

## <인터넷 자료>

블로그 '다른 경제' : <http://blog.daum.net/alter-economie>



# SE 역사적 개념의 변화







#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 및 전망

김신양(성공회대 교수)

## I. 서론

사회적기업의 실체는 단일하지 않다. 그것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의 공통적인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경제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하나의 단일한 조직형태를 가지지 않으며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한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Community business(공동체사업), Social firm(사회적회사), Intermediate labour market(인력파견기업)과 더불어 제도화된 사회적기업인 Community interest company(공동체이익회사) 등이 있고, 프랑스에서는 Entreprise d’insertion(노동통합기업), Régie de quartier(지역관리기업), 그리고 제도화된 사회적기업인 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êt collectif(공동체이익협동조합) 등이 있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법이 제정된 후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였는데, 아래 표 1.에서 보듯 제도화된 사회적기업 또한 그 명칭과 목적, 운영원칙에 있어 다양성을 보인다.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각국의 사회경제적 전통과 문화적 특성, 그리고 제도 및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조직 내에서도 어떤 집단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협동조합적 성격이 강한 유형, 지역사회공동체 성격이 강한 유형, 비영리민간단체 성격이 강한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천차만별이고 그 정의 또한 다양하므로 사회적기업을 논의할 때 어떤 특정한 개념과 잣대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편협한 접근방식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존재방식 등 사회적기업이라는 ‘현상’에 주목해서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최근에 지역별(또는 집단별)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통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유럽, 미국, 동아시아 등 대륙별 비교연구가 다소 이루어져 각 대륙별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것이다.

표. 1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현황

	명칭	연도	방식	특성	비고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Cooperative sociali	1991	새로운 협동조합	A형, B형, 혼합형, 컨소시움으 로 구분	2005년 기준 7300개, 244 000명 고용
	사회적기업 Impresa sociale	2005	legal brand	-이익비배분의 제약, -노동자 및 수혜자를 포함하 는 복합이해당사자 구조, -사업의 '사회적유용성(social utility)' 기준	특별한 이점 없어 활용 미 비
영국	공동체이익회사 Community Interest Company	2004	새로운 상법상의 조직	사회적기업의 자격을 얻기 위 하여 총수입의 50% 정도를 시장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관례	제정 후 2년 내 1000개 2010년 현재 3561개
벨기에	사회적목적회사 Société à Finalité Sociale	1996	인증제	-복합이해당사자구조	
포르투갈	사회연대협동조합 Cooperativa de solidariedade social	1997	새로운 협동조합	-아동, 장애인, 사회 불이익 가정 및 지역사회와 같은 취 약집단 통합 -복합이해당사자 구조 -조합원에 대한 이익 분배 금 지	
스페인	사회시도협동조합 Cooperativa de iniciativa social	1999	인증제	-사회적배제자의 노동통합 -이익 분배 금지	
그리스	유한책임 사회적협동조합 KoiSPE	1999	새로운 협동조합	-심리사회적 장애자의 사회 및 직업적 통합	
프랑스	공동체이익협동조합 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êt Collectif	2001	새로운 협동조합	-노동자, 이용자, 자원봉사자, 지방정부, 설립멤버 등을 포함 하는 복합이해당사자구조	2010년 3월 현재 164개 승인
미국 Vermont 주	저영리유한책임회사 L3C 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	2008	새로운 상업회사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 간 형태 -자선 및 교육 목적을 가지는 조직 -프로그램연계투자(PRI's) 유 치 목적으로 제정	N o r t h carolina, Michigan, Montana, Georgia주에 서도 준비 중

## II. 사회적기업의 발전 과정

### 1. 사회적기업의 등장

사회적기업이 탄생되고 발전하는 과정은 각 국의 제 3 섹터(사회적 경제, NPO, 민중경제)의 현황에 기초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 및 제 3 섹터에 대한 제도적 인정의 기반이 있는 유럽과 그렇지 못한 아시아 및 기타 국가의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의 경우 제 3 섹터의 개념을 대표하는 비영리조직(NPO)이 발전되어 있으나 운영원칙상의 '비영리'라는 이념에 묶여 있어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분배를 통해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을 충분히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모태는 60년대 말 이탈리아의 사회연대협동조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70년대에 이미 사회적기업 방식이 발전하고 있었으나 1991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법이 제정되면서 90년대 중반에 들어 학문적 영역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전파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저서는 이탈리아의 보르자가 및 산투아리 교수가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전국컨소시움(CGM)과 협력하여 발간한 '유럽에서의 사회적기업과 새로운 고용(Social enterprises and new employment in europe, 1998)'이었으며, 유럽의 사회적기업연구네트워크 EMES는 1995년에 이미 유럽 15개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 EMES의 연구 및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산하에 노동자협동조합 및 장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아우르는 CICOPA의 유럽지부인 CECOP의 노력에 힘입어 유럽 각국 정부는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그런데 유럽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장 적극적 관심을 보인 정부는 영국<sup>4)</sup>으로서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형태 또한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낙후된 지역의 재생 및 활성화를 중요한 과제로 두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기원은 유럽과 큰 차이를 보인다. 사실 미국의 경우 사회적기업 보다는 '사회적기업가'라는 용어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실업 및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제 3 섹터의 활동변화의 과정에서 탄생한 유럽의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NPO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중단이 큰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NPO의 쇠퇴와 재정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새로운 시장의 발굴'이었

4) 영국의 통상산업부(DTI)는 2002년 '사회적기업, 성공전략(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www.dti.gov.uk/socialenterprise/strategy.htm](http://www.dti.gov.uk/socialenterprise/strategy.htm))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활정보센터에 의해 2004년에 번역된 바 있다.

으며, 그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혁신’이었고, 사회적기업가가 그 정신을 구현하는 존재로 부각된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NPO)와의 협력으로 1980년대 초부터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의 확산으로 기독교 윤리에 입각한 기업가들이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지원했기 때문이다. 1980년 초 빌 드레이튼에 의해 설립된 아쇼카재단을 시작으로 Echoing Green(1987), The Schwab foundation for social entrepreneurs(1998), The Skoll foundation(1999), The Manhattan institute for social entrepreneurs(2001) 등 많은 재단이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에 걸쳐 2,000명의 사회적기업가에게 자문 및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Mertens, 2010).

유럽과 미국에서의 영향으로 OECD 차원에서는 이미 1996년부터 대안경제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sup>5)</sup>가 이루어졌는데 OECD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지역고용창출 및 지역개발의 측면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LEED 프로그램이 이끄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 지역개발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지역개발의 성공은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며, 사회적기업이 이러한 과정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실제 OECD 차원에서 회원국의 지역개발 과정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 훌륭한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 지역개발의 사례는 지역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사업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활지원, 사회통합,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사회개발 등의 영역에서 대부분 사회적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Noya, 2007).

아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0년대에 들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영향이 크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유럽과는 달리 제 3 섹터 및 대안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조직의 잠재된 열망이 컸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각국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 관심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이후 복지제도개혁의 과정에서 취약한 공적서비스를 확충할 수단으로 사회적기업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유럽 및 미국의 영향을 받아 두 경향이 혼재하는데 민간의 경우 유럽식 접근이, 정부 및 다수 연구자들은 미국식 접근을 보이고 있으며,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여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 1996년에는 ‘경제와 사회의 조화, 복합경제(Réconcilier l'économie et el social, économie plurielle)’을 붙여로 발간하였으며, 1998년에는 ‘기업가정신 복돋기(Fostering entrepreneurship)’, 1999년에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이라는 소책자를 영어 및 불어, 스페인어로 발간하였으며, 2003년에는 ‘변화하는 경제에서의 비영리섹터(The Non-profit sector in a changing economy)’를 발간한 바 있다.

##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 1) 유럽의 경우

유럽은 조직 형태 및 수, 법제화 및 연구 등의 측면에 있어 사회적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나 실제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비중은 아시아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는 유럽의 경우 이미 사회적 경제라는 거대한 섹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연대의 경제' 및 '근린서비스'라는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나 정책 차원에서는 '사회적연대의 경제'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특히 민주적 운영과 비영리목적 등 사회적경제와 많은 부분 그 본질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기업인 협동조합, 공제조합,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결사체(association)와 많은 공통점을 가질지라도 특히 한 부분, 즉 '복합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라는 지배구조의 복합성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전통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이용자라는 동질적인 구성원에 기초하여 발전한다(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농민, 은행협동조합의 경우 예금자,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노동자 등). 반면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험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의결구조에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전체를 통합한다(노동자, 이용자, 자원활동가 및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부여하는 지방정부의 대표 등).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전통적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모델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유럽 각국 및 유럽 차원에서 강력히 조직되어있는 협동조합운동 진영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사회적기업이라는 독창적인 형태의 협동조합이 가진 이점을 최초로 발견한 CECOP 하여 추진된 연구가 나오기까지 사회적기업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었다. CECOP은 이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전체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유럽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제도화된 사회적기업 외 사회적협동조합, 노동통합기업 또는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정책(자활정책)에 참여하는 조직 등 다양한 조직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존재이유를 규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사회적배제에 대한 대응, 새로운 서비스 개발, 대안적기업 운영을 통한 대안경제 발전으로 들 수 있다. 첫 번째 요소가 가장 광범위한 조직을 포괄하며 그 형태는 '노동통합 사회적기업(WISE)'으로 존재한다. 이 조직은 기존의 빈곤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비효율성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복지 혼합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재사회화 및 직업세계적응, 기능 확보 및 향상, 일반노동시장 취업 등 단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에 따라 제공하는 일자리 또한 훈련생, 단기근로, 파트타임, 장기근로 등 다양하다.

## 2) 미국의 경우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유럽과 아주 다른 배경에서 탄생하였으며 학문적으로도 경제 및 경영학 분야에서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연대'와 '집단적 역동성'을 주요한 가치로 두는 반면, 미국의 사회적기업을 규정하는 핵심 가치는 '혁신'이다. 그러므로 '복합이해당사자'와 같은 지배구조나 '민주적 운영'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비영리단체의 원칙에 기반함과 동시에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의하여 운영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가가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가의 이미지는 '집단적 역동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유럽의 이미지와는 달리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가진 윤리적 기업가'라는 기독교 정신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연대의 정신은 시민의 의무나 '사회개혁'의 과점이 아닌 '자선적' 관점이 지배한다.

또한 '사회적 목적'이라는 표현이 아닌 '사회적 미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내용은 취약계층의 소득 확보가 핵심을 이룬다. 그러므로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공하는 일자리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개념은 고려되지 않고 기업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관계 강화' 또는 '사회응집력 강화'보다는 취약계층의 빈곤(복지수혜)탈피나 경제적 자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근 Workfare정책의 기초 하에 노동통합형 모델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새로이 등장한 Social purpose business).

## 3) 동아시아의 경우

동아시아의 경우 유럽적 경향(사회적 경제)과 미국적 경향(NPO)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공통적으로는 강한 정부주도성과 민관간의 갈등으로 특징지워지는데 민간의 경우 취약한 대안경제의 전통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계기를 통해 대안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열망이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경우 유럽과는 달리 사회적경제나 제 3 섹터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복지 및 고용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을 취약한 공적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전달체계로 고려하고 아직 경제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관련 연구자들의 경향은 자유주의적 성향의 경영학계 또는 미국식 사회적기업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다수로 이들의 관점이 정부정책에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사회적기업의 존재 방식

	유럽	미국	동아시아
전통	사회적경제	NPO, 기업의사회적책임	사회운동(노동, 복지), NPO
사회적 맥락	사회적 배제	비영리 재정독립	빈곤
관점	사회개혁	자선	사회개혁, 자선
관련정책	실업흡수, ALMP, 새로운서비스개발	공공부조,	공공부조, 사회서비스확대, 제한적 ALMP

### 3. 사회적기업에 대한 접근 방법 및 개념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은 대륙과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국 내에서도 집단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제 3 섹터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찾아보면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논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는 사회적기업가(social entrepreneur),는 사회적기업방식(또는 사회적기업정신, social entrepreneurship) 등과 같은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의 이니셔티브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즉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전통에 기초한 유럽 -또는 집단-의 경우 집단적 역동성을 강조하므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구조에 주목하는 반면, 사회적 혁신을 강조하는 미국의 경우 사회적기업가의 의식 및 역량, 또는 사회적기업방식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접근법의 차이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게 되는데, 최근에 이루어진 관련연구에 따르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논의된다. Business school의 경영학계가 주도하는 미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기업가와 그에 의한 혁신을 강조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나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전통에 기반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들과 사회적경제 연합조직이 논의의 주체가 되며,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집단적 역동성에 중점을 둔 지배구조와 민주적 운영을 강조하는 데서 미국의 접근법과 차이점을 보인다.

## 1) 미국 Earned income school

사회적기업의 존재이유를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득 창출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학파- 또는 경향 -를 지칭한다. 이 학파는 사회적기업가를 사회적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그 활동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활동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지 돈을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회적기업가로 간주한다.

이 학파는 초기에 'Commercial Non-profit' 또는 'Enterprising Non-profit'으로 사회적기업을 접근하였으며 Social Enterprise Alliance(2002)는 사회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NPO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비즈니스 전략 또는 활동"

(Any business strategy or activity carried out by an NPO to generate income supporting its social mission)

이 학파는 이후 'Mission-driven business'로 사회적기업을 접근하며 시장중심에서 사업방식에 대한 시각을 확장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회부문조직으로 중심을 이동한다. 따라서 비영리조직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 사회적기업방식의 도입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Social Enterprise Knowledge Network의 정의가 이를 잘 표현해 준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가진 활동을 수행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NPO기업, 일반기업 또는 공공부문조직"

(Any form of enterprise in the framework of an NPO, a business company or entities from the public sector, carrying out an activity with a significant social value or producing goods or services having by themselves a social aim"

## 2) 미국 Social innovation school

이 학파는 1980년대 이후 '공공재를 위한 기업가'를 진흥하는 아쇼카 재단의 이념에 의거하여 발전하여 'Public good entrepreneur school'이라고도 하며, 사회적기업가에 의한 사회혁신의 과정을 강조한다(Dees, 1998). 기업가정신과 헌신적인 활동가 의식을 가진 개인을 사회적기업가로 규정하며 그들의 특별한 기술 -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 기업가 정신, 사회적 임무에 헌신, 끊임없이 혁신 추구 등 -에 중점을 둔다. 사회적 문제 및 사회적 필요(needs)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더 나은) 방안의 수립이 필요한데 사회를 위하여 더 높은 사회적 산출을 얻기 위한 영역으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생산 방식을 개혁하거나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개인이 바로 사회적기업가 라는 것이다.

이 두 학과는 동일한 미국적 토양에서 시작되었지만 소득창출 및 단기간의 성과를 겨냥하는 Earned Income school에 비하여 Social Innovation school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소득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사회변화에 대한 산출에 의해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차이점을 보이며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 3) 유럽사회적기업연구네트워크 EMES

EMES의 경우 유럽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기반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경제적/기업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하지만 경제적 목적은 사회적 목적에 종속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기업을 협동조합과 결사체의 가교로 보며 사회적경제의 전통에 기반하지만 이를 혁신하는 새로운 조직방식으로 규정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측면에서 본 9가지의 기준에 의거하여 내린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민간조직이다.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지배구조에 다양한 유형의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집단적 역동성에 근거하며, 자율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기업 활동에 연동된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한다."

(Social enterprises are not-for-profit private organisations providing goods or services directly related to their explicit aim to benefit the community. They rely on a collective dynamics involving various types of stakeholders in their governing bodies, they place a high value on their autonomy and they bear economic risks linked to their activity)

표 3. 사회적기업에 대한 접근법

	Earned Income School	Social Innovation School	EMES
이니셔티브	NPO, 기업재단(CSR)	사회적기업가, 재단	사회적경제, 사회운동
목적	NPO 재정확보 및 지속성	사회 혁신	사회적배제 대응, 복지통합, 대안경제구축
조직의 역동성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	집단적 지배구조 (복합이해당사자)
조직형태	NPO, 공공섹터	NPO, 상업회사,	협동조합, 복합이해당사자구조
자원	시장	시장 및 공공부문	시장, 공공부문
성과 평가	단기간, 소득중심	장기간, 사회변화중심	장기간, 사회변화 중심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이한 접근법에 대한 이해는 단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학문적 관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석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준다는 점이다. 즉, 누구에 의해 주도되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이한 접근법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 및 한국에서 전개되는 사회적기업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및 한국의 경우 유럽과 미국의 접근법에 영감을 받거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접근방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성이 사회적 실천의 풍요로움을 제공하여 ‘긍정적 경쟁’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또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실천이 객관적 현상으로 이해된다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주도하는 집단에 따라 어느 것이 진정한 사회적기업이냐를 두고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며, 각자의 입장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서는 갈등의 양상은 ‘부정적 경쟁’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그 경쟁은 주도하는 집단의 힘의 균형이 깨어질 때 어느 집단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변화

사회적기업은 크게 공공부조의 틀 내에서 취약계층 사회화 및 생계지원 사업이, 일자리창출 정책에서는 창업 지원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사업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는 직업훈련 및 취업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 초기에는 공공근로와 같은 실업흡수를 위한 정책이 주요기반이 되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고 2차노동시장의 형성이라는 문제점을 양산하여 점차 Activation정책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후 실업 및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넘어 사회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제성장의 과제가 사회응집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방향이 수립되며 적극적으로 대인서비스 개발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정책이 사회적기업의 정책기반을 형성하고 있다(프랑스(2004)의 ‘사회응집력을 위한 법’ 내 대인서비스 개발 프로그램, 벨기에(2001)의 근린서비스개발법 등)

아시아 및 동유럽의 경우 취약한 공공복지체계의 보완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및 이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모색이 정책 기조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서비스관련법 제정을 통하여 재정을 확보하는 경향을 보인다(체코의 Act on social services, 일본의 개호보험, 한국의 바우처제도 도입 등).

그런데 유럽의 경우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개발정책이 상당부분 효과를 보이며 사회적기업의 강화 및 확대에 기여한 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경우 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것은 유럽의 경우 이미 공적서비스의 기반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서비스가 개발되어 주고객이 공적서비스 수혜자 이상의 최소한의 지불능력을 갖춘 계층인 반면, 아시아의 경우 새로이 개발되는 서비스는 필요한 공적서비스를 채워나가는 과정이므로 이용자의 지불능력이 미미하여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기업의 재정확충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불평등의 증가와 이민자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이동이라는 맥락 하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주요한 정책적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선진국으로의 이동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제 3 세계 지원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며, 그에 따른 재원확대 및 조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III. 한국 사회적기업의 태동 및 전개과정

한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이전의 자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활생산공동체운동과 외환위기 직후 시작된 실업극복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우선 자활생산공동체운동은 도시빈민운동과 노동자협동조합이 결합된 형태로서 외환위기 이후 자활지원사업의 도입에 토대를 제공하며 사회적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물적기반 및 자활공동체라는 형식적 틀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극복운동은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제 3 섹터를 개발하며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기업의 내용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자활공동체운동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운동으로 형성되지 않은 시범사업 단계였으므로 이 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시민사회에 의한 일자리창출의 단계부터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모색단계(1998년 ~ 1999년): 공공근로와 시민사회에 의한 제 3 섹터형 일자리 창출사업

- ☐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지원을 받는 실업자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제 3 섹터형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 모색 시기
- ☐ 사랑의 집수리, 독거노인무료간병도우미파견, 초등학교청소(형광등, 화장실), 재활용(음식물, 컴퓨터 및 폐자원) 등 5개 주요사업의 전국적 시행으로 수혜자 및 언론의 우호적인 반응을 얻었음
- ☐ 실업자종합지원센터가 결집,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실연)의 조직화로 본격적인 실업 극복 및 일자리 창출운동 전개

=> 최초로 시민사회단체가 새로운 고용정책을 제시하며 '일자리의 유용성'에 관한 담론을 제시. 이후 '사회적일자리'개념으로 대체됨

=> 공공근로의 항시적 보장을 통하여 실업부조제도 도입 의도

## 2. 태동단계(2000년 ~ 2003 중반): 자활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맹아 탄생

-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으로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이 자활사업(자활근로)으로 통합됨
- ☐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시도는 제도의 통제 하에서 자활공동체설립으로 추진됨
- ☐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는 일자리 창출이 탈빈곤 이라는 목적과 혼돈을 일으킴
- ☐ 제 3 섹터형 일자리는 자활근로 중 공익형일자리(vs 시장형), 사회적일자리로 축소되어 전개
- ☐ 주요사업은 5대 표준화사업으로 추진되며 업종별 네트워크가 활성화됨

=> 자활공동체 가운데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조직 대두

## 3. 사회화 단계(2003 중 ~ 2006):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이후에도 차상위계층을 비롯, 다수의 근로빈곤계층이 존재하여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 도입. 이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데  
첫째, 다수의 근로빈곤계층을 국가법이라는 안정적인 틀에서 보장하기보다는 비용을 적게 들이고 민간과 그 책임을 나누려는 의도가 있으며  
둘째, 고용 없는 성장의 예측 속에서 서비스부문에서의 일자리 개발의 의도가 있음
- ☐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선구적인 노력이 제도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의를 가짐
- ☐ 주체의 다양화 : 이때부터 기존의 노동, 복지, 실업, 빈민운동을 중심으로 한 진영에서 여성, 환경 등 본격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신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 민간의 경우 사회적목적을 가진 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경제운동의 측면에서, 정부의 경우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
- ☐ 자원의 다양화 : 본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CRS)'에 의한 사회공헌사업 및 공적 기금(복권기금 등)이 민간으로 투입되면서 자원의 다양화를 이루며 제도적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완

- ☐ 사회적기업 지원조직 탄생 : 사회연대은행, 실업극복국민재단,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 ☐ 전국규모의 13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조직이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구성

=> 시민사회, 정부, 기업의 세 주체가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

#### 4. 제도화단계(2006년말~2010년중): 사회적기업육성법 도입 및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성

- ☐ 시기상조라는 시민사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도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 ☐ 여전히 취약한 기반:
  - 업종별 네트워크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조직적 활동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분산 및 파편화로 인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이 미약하고,
  - 연대적인 금융조직이 극히 적어 정부에 자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 ☐ 인증을 통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유인책이 됨

=> '사회적경제연대회의'(26개 시민사회단체, 생협, 연구소 등)로 확대·재구축되어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 설립운동 전개

#### 5. 지역화단계(2010 중 ~현재):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실험

- ☐ 지방선거의 주요정책안으로 등장하면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으로 이동
- ☐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개정) 활발: 82개 자치단체(6개 광역시도, 66개 시군구)
- ☐ 그러나 지역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및 실현방안을 미약한 실정
  - 시민사회단체: 공동의 정책안 부재로 적극적 개입에 어려움
  - 자치단체: 여전히 복지 및 고용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입장과 보다 넓은 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 등 다양
- ☐ 지역차원의 실험을 위한 물적 기반 조성과 더불어 정책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 필요

## IV. 사회적기업 제도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 1. 제도화의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관련법 정비 및 개선 부재로 인한 기본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시급한 현안을 살펴보면 가장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부실한 지원정책이다. 이 부실함은 재정적 지원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재정집행의 비효율성 문제인데 이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실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회적기업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이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공적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자리 잡은 협동조합 및 공제조합의 연합조직이 참여하는 연대금융이 존재하므로 재정지원 및 운영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의 기반이 취약하므로 사회적기업의 설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이 경영지원에 맞추어져 있어 설립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민간재단과의 파트너십을 갖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부족한 외부 영리집단이 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노동집약적 산업이 다수인 사회적기업의 생산력 강화에 복무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개발에는 거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기업 설립 초기에 법이 제정되어 사회적기업 당사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공공부문과 협상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종별, 지역별 연합조직이 부재하거나 조직력이 미미한 상황에서 개별 사회적기업은 거대한 공공부문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정책의 도구화 전략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적기업 당사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모단체들의 연합인 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인식부족에 있다. 모단체와 그 연합조직이 개별 사회적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변해주지 않는다면 사회적기업은 한편으로는 정부의 규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 휩쓸려 균형을 잡기 어렵게 될 것이다.

### 2. 제도적 과제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더불어 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커다란 마찰 없이 제정되었고 법 시행이후 꾸준히 인증받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제도화 이후 약 4년이 지난 지금, 제도에 대한 1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나 그간 여러 차례 관련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어찌보면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총체적인 평가라 함은 우선 제도가 목적하는 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제도의 효과), 둘째는 법조항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제도적 목적과 조응하는지(제도의 정합성) 셋째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관련제도가 충돌하지는 않는지(타제도와의 조화), 넷째는 제도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되었는지(제도의 효율성)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 및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제도의 효과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추진한 정부부처는 애초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단기간 양적인 성장을 기대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인증받은 기업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시행 초기 노동부는 향후 3년간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4년이 지난 목표량의 50%만 인증받았을 뿐이다. 물론 인증받은 기업의 수가 사회적기업 성장과 발전의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애초 양적인 성장을 기대한 만큼 그에 근거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제도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실태조사가 미비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제정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기상조라는 표현은 이러한 문제까지 예상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나라에서 관련법이 제정된 과정을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예컨대 한국의 법에 가장 많은 영감을 준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SC)에 관한 법과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IC)에 관한 법을 살펴보자. 이탈리아의 경우 SC는 60년대 말에 탄생하였으나 법이 제정된 시기는 20여 년이 지난 1991년이였다. 또한 법제정 계획이 발표 된후 약 10년간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자원봉사의 참여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 간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마침내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30%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장기간의 준비를 통해 제정된 후 매년 평균 500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성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영국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통상산업부 내 사회적기업팀을 두어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을 먼저 추진하였으며, 법 제정을 위하여 약 2년간 사회적기업 Mapping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공통점을 도출하고 30여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조사를 거쳐 기준을 만들어 2004년에 CIC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 결과 영국 또한 매년 평균 500여개가 새로이 인증을 받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렇듯 미비한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민간단체 및 사회적기업은 우선구매 및 판로개척을 비롯한 부족한 지원체계에 원인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그 또한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일 것이나 필자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

도적 완결성의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제도적 완결성이란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구조와 체계를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제도를 설계할 때 놓치고 간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사회적기업은 민간이 시도하는 사업이나 제도화가 된 후에는 제도적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제도적 책임은 사업을 운영하는 당사자 뿐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부문에게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로만 축소·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내에는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평가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제도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당사자 또한 그 주체가 되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조직 또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는 이 주체들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시장의 이해당사자들도 포함된 독립적인 구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평가의 대상인 육성위원회가 평가를 책임지고 있어 제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당사자의 입장 및 처지가 배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제도란 원래 상호작용을 통해 그 결과가 드러나는 법, 상호작용의 메카니즘을 고려하지 못한 평가는 제도의 효과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한 조절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기술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제도가 산출하는 결과를 보는 것이라면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원활하도록 뒷받침하는 장치 또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노사간의 분쟁을 막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있어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장치가 전무하여 법안 및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각종 지침의 해석에 따른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대로 해석해 주는 기구가 없어 담당공무원의 해석이 곧 판결이 되어버린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관련법과 제도에 대해 무지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가 모든 법과 제도를 꿰뚫어 보아서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각종 조항 및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공무원과 사회적기업간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에 따라 상이한 조치를 내리는 경우 또한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회적기업이 상담할 수 있는 곳도, 또 제소할 수 있는 곳도 존재하지 않아 불만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고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관련제도에 대한 문제는 조금한 마음에서 우선 법제정을 하고나서 보자 라는 안일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당시 사회양극화 문제가 전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사회정책이 부재한 탓에 사회적기업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그리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뿐 아니라 법이란 그 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졌을 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제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며 성행되어야 할 과제라 판단된다.

## V. 민간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2006년 12월 8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2007년 7월 1일 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 인증사회적기업은 2011년 2월 현재 500여개에 이른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당시 자활지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현 ‘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사회적경제에 입각한 사회적기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법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법 제정에 적극 개입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주도성이 강화되면서 사회적경제 진영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법 제정 이전부터 사회적기업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며, 지원 활동과 교육을 수행해 왔던 사회적경제 진영은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주도성을 상실하면서 주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 내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유럽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데는 제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이 크다. 1991년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법 제정을 시작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이 제정된 것은 1990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이었으나, 그 맹아적 형태는 이미 1970년대 초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부터였다. 즉, 제도화가 되기까지 약 20여 년간 민간단체는 사회적기업을 실험하고 정착해 왔으며 그 결과로 제도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독자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제도에 안착한 규모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협동조합 및 공제조합의 초기자본조성에 기반한 다양한 연대금융 조직은 시민사회단체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도적 지원의 부족을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NPO)와의 협력으로 1980년대 초부터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의 확산으로 기독교 윤리에 입각한 기업가들이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지원했기 때문이다. 1980년 초 빌 드레이튼에 의해 설립된 아쇼카재단을 시작으로 Echoing Green(1987), The Schwab foundation for social entrepreneurs(1998), The Skoll foundation(1999), The Manhattan institute for social entrepreneurs(2001)

등 많은 재단이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에 걸쳐 2,000명의 사회적기업가에게 자문 및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제3섹터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전통적 사회적경제조직의 변화가 심각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단절되어 있는 실정이다. 민간영리기업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부족한 제도적 지원을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사회적기업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보다는 직접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추세로 전환하여 CSR의 자원이 시민사회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취약한 물적 기반으로 인해 자원 동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편입되지 않고서는 독자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재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사회적기업에 직접 제공되는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수행주체를 동반하게 된다. 현재 진행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반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공급주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자원의 쏠림 현상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거나, 자원동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사회적기업과 그 모태가 되는 시민사회진영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원인이 되며,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 쿠폰제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관리 비용의 증가와 운영합리성의 문제를 안고 있어 현실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이 사회적기업 설립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제시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게 있어서 인건비 지원과 같은 유인책은 자립을 위한 보조수단이 아닌 사회적기업의 취약성을 구조화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 제정 논의 단계 때문에 예견되었던 문제였다. 당시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현재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인증 사회적기업 모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지원 방식이 아니라 노동통합 기업에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노동통합기업을 사회적기업의 한 유형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기업의 정부 의존성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고, 인건비 지급방식의 연차별 변화 등과 같은 방식이 제안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율과 서비스 제공비율이 인증요건으로 제시되어 있고, 또한 시장경쟁력을 통한 재정적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비율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공공·민

간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유형의 재검토와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유형의 인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문보경, 2010).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사회적기업 및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 스스로가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 비율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에 의해 보호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기업 내부에서부터 공동체 기금을 조성하거나 사회연대금고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데, 이는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낮추면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유의미한 시도라 할 수 있다.

## 1. 지원방식의 문제점

업종에 따라 필요자본의 규모는 다르겠지만 현재 사회적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본의 부족이다. 자본은 공간임대 및 설비구입 등 설립당시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설립 후에도 사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단기간 운영비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에 따라 민간지원조직의 경우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대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거의 없으므로 여전히 이에 대한 욕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운영자금의 부족이다.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대부분의 지원프로그램이 1회로 한정되어 있어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가 한 번이 아닌데 지원프로그램은 1회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방식이다. 이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기업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일반상품보다 이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취약한 자본력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 2. 지원 내용의 문제점

인건비 지원 등 소모성 지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개척과 판로를 확보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일반시장에서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어떻게 고객(소비자)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기업 내적으로 인적자원의 향상을 통한 생산기술 향상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와 연동되어 있다. 그러나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시장의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생산력 향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

는 사회적기업에게는 시장개척이 용이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를 확보하고 판로를 확보하는 지원이 절실한데 실제 윤리적소비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 3. 지원역할의 문제점

한국의 민간지원조직의 경우 대부분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기부문화가 발달하지 않아 지원을 위한 재원 또한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더하여 강력한 정부 주도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의 경우 정부의 위탁사업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원조직으로서 지원대상조직과 정부간의 매개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지원대상조직이 정부의 지원체계에 불만이 있으나 그 불만은 정부에게로 향하지 않고 중간조직에게 향하여 지원조직과 대상조직간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하나 지원조직은 매개자로서 지원대상조직을 대리하여 그 불만을 전달하고 정부의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소극적이다 보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정부의 지원내용 중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이 있는데, 대부분의 컨설팅제공기관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 시간때우기 식으로 이루어져서 사회적기업이 아예 컨설턴트의 방문을 귀찮아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지원조직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원조직이 자기 철학이 부재하여 자율성에 기반한 지원내용과 방식을 고민하지 않고 성과위주의 사업에 매몰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사회적기업의 욕구와 민간의 지원체계 연관성

사회적기업의 주요욕구	민간의 지원현황	비고
인건비및운영비지원	사회적기업 대부사업(함) 경제자립기반조성사업(사) 일자리창출사업(공)	- 중점지원분야 - 자원의존도가 높을수록 자립에 어려움.
시설비지원	사회적기업시설운영비대부사업(연) 자활인프라지원(공)	- 일부, 제한적, 조건부 지원 가능
생산기술및품질향상	사회적기업성장지원사업(연)	- 욕구에 비해 지원 부족 - 향후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안정적인판로확보 (공공기관우선구매등)	윤리적 소비촉진 및 판로확보(함)	- 욕구에 비해 지원 부족 - 제도적 지원 필요
경영지원 (마케팅역량강화 및 지원,교육훈련 등)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경영지원(함)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양성사업(연)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사)	- 인건비와 함께 지원되고 있으나 만족도 낮음.

주: (함)은 함께일하는재단, (사)는 사회투자지원재단, (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은 사회연대은행을 각각 지칭

## 4.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과제

### 1) 시민사회조직의 철학적 기반과 정체성 인식

최근에는 대기업의 자금 출연으로 설립한 인증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좋은 곳에 사용하는 기업에서부터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사회통합적 관점에 입각한 사회적기업까지 매우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다. 현실에서 폭넓게 정의되고 실현되는 새로운 경제활동 방식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기업 활동에 사회적 역할(사회공헌과 같은)을 강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윤리 경영, 친환경적 생산과 기업 활동 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른 경제활동을 실천하는 시민사회 그룹에 의해 모색되고 실현되어진 대안적 경제활동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논의하는 집단에 따라 달리 이해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원조직이 우선 사회적기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적 목적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지원의 원칙과 내용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원대상조직과 공유할 때 지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 2) 독자적인 재원마련 및 자원동원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진영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의 대부분은 정부재원에 의존하여 정부의 사업을 대리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지속성의 문제는 지원조직의 자생력과 지속성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민간지원조직은 우선 정부 위탁사업 위주의 활동방식을 지양하고 자체 재정을 통한 독자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출발점은 독립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우선 일부 조직 및 지역에서 추진하는 공동체기금형성사업 및 공제조합 설립 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시민과 기업의 기부와 자원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및 다양한 사업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국가의 재분배정책을 통한 지원은 정책의 도구가 될 위험이 있으나 시민사회의 호혜성에 기반한 자원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은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회의 융합을 이루는데 기여함으로써 따뜻한 연대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 3) 다양한 연대금융의 실험

사회적기업의 운영자금 부족 문제에서 보았듯이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자금문제를 해결해주는 금융서비스의 확대이다. 유럽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이크로-크레딧, 마이크로파이낸스, 연대성예금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금융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단기대출상품은 유동성이 부족한 시민사회단체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설립이 활성화되었다. 한국의 사회연대은행 또한 대안금융을 지향하고 있는바, 마이크로-크레딧을 넘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연대적 상품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한 연대성 투자기금을 형성하거나, 일반시민의 예금을 활용한 Social banking을 개발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4) 윤리적 소비자의 확대

공정무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기업의 정착에 필요한 것은 윤리적 소비자의 조직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이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시민을 조직하는 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경험은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축적되어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이 경험을 제한적인 계층이 아닌 지역주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윤리적 소비자층을 확대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서 보호해야 할 기업이 아니라 사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윤리적 측면을 부각하는 연대적 마케팅 기법으로 이미 개발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노하우를 터득하고 적용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의지가 아닐까?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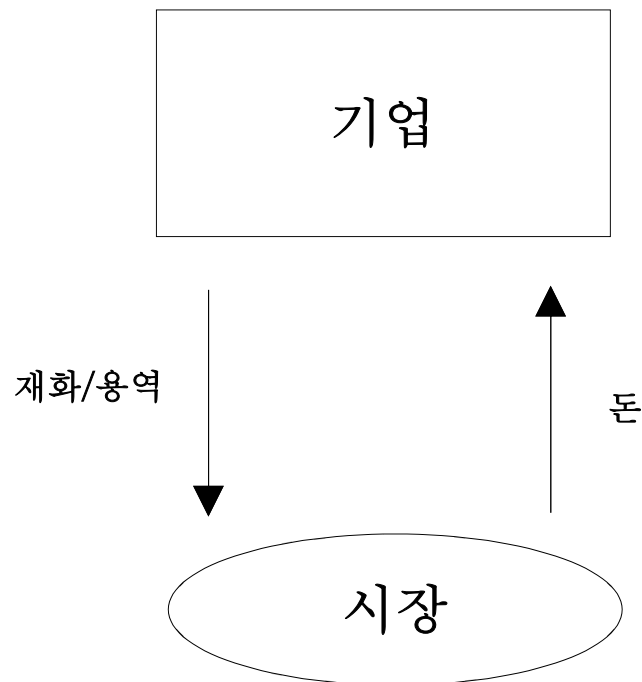
- 김신양(2009), 「사회적기업: 세계적 동향과 과제」, 충북대사회과학연구소 세미나 발제자료, 2009년 2월 9일.
- 김신양(2010),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지역전략」, 제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발제자료, 2010년 12월 17일.
- 김신양·장원봉(2009), 『사회적경제의 이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사회투자지원재단.
- 노대명·김신양·장원봉·김문길(2010),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보경(2010),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스템과 사회적기업가 양성 현황과 과제」, 2010 한일 사회적기업 국제심포지움 및 장애인 국제교류대회, 오사카.
- Defourny, J. & Nyssens, M. (2008), "Social enterprise in Europe : Recent trend and developments", EMES Working Paper No.08/01, 2008.
- KIM Shinyang(2009), "The Dynamics of Social Enterprise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2<sup>nd</sup> EM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University of Trento.
- [http://www.emes.net/fileadmin/emes/PDF\\_files/Selected\\_Papers/Serie\\_2\\_Theme\\_2/ECSP-T09-10\\_Kim.pdf](http://www.emes.net/fileadmin/emes/PDF_files/Selected_Papers/Serie_2_Theme_2/ECSP-T09-10_Kim.pdf)
- Laville, J-L. (2000),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n Europe", Rencontres Européennes des acteurs de l'économie sociale et de l'économie solidaire, Tours.
- Noya, A. (2007), "Les entreprises sociales : une perspective internationale", l'Université populaire et citoyenne de Paris 'Reconfigurer les rapports entre économie et solidarité : associations, coopératives et entreprises sociales'.
- Merten, S(2010), *La gestion des entreprises sociales*, Edi.pro, Liège.
- OECD(1999), *Les Entreprises Soci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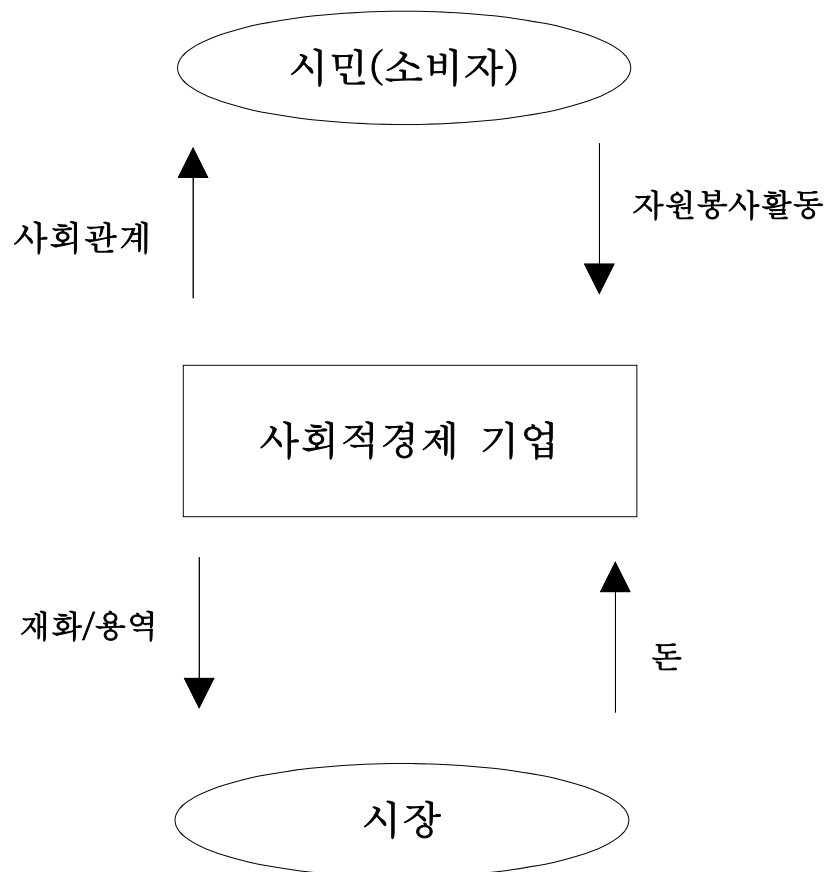


# 기업의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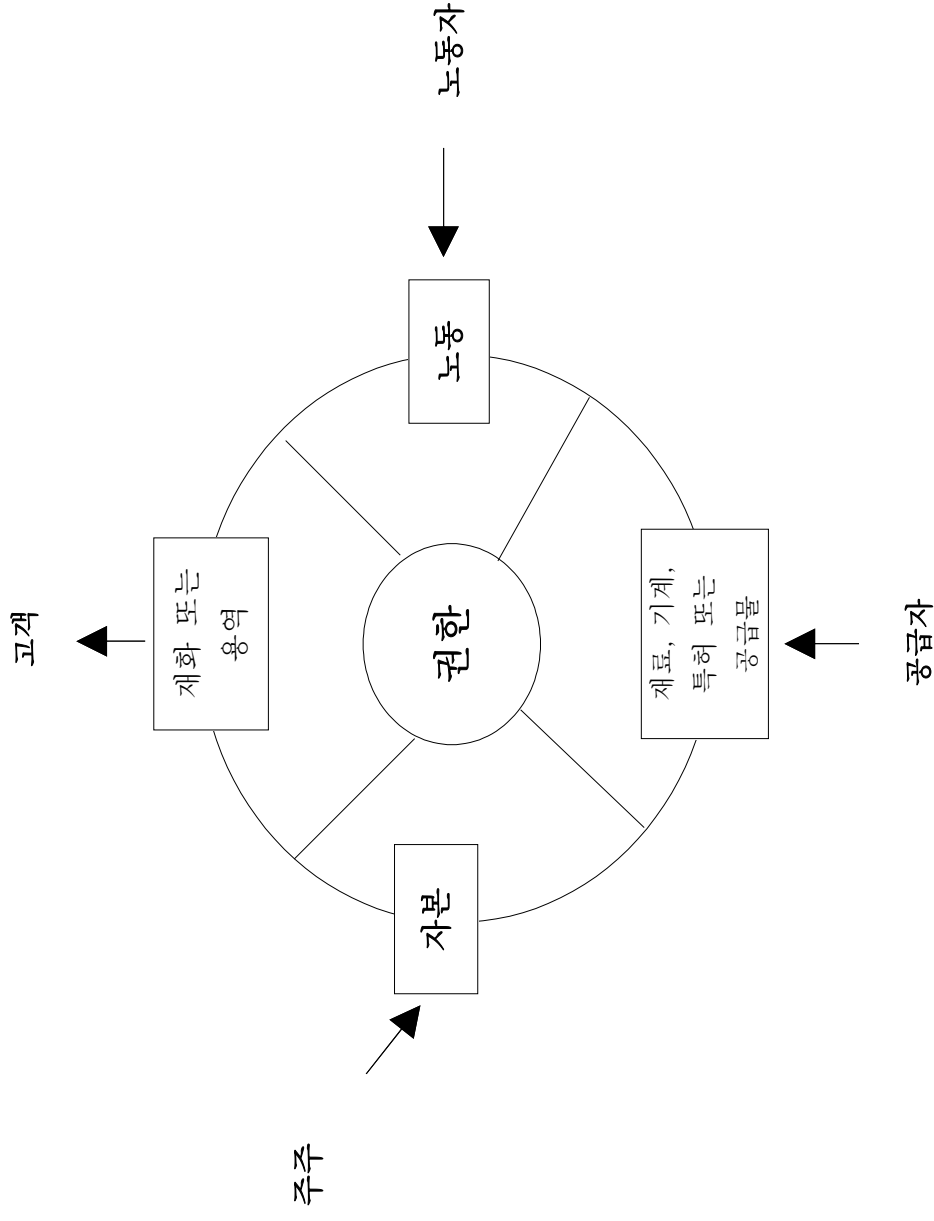
기업과 시장 1



## 기업과 시장 2: 사회적경제기업의 2중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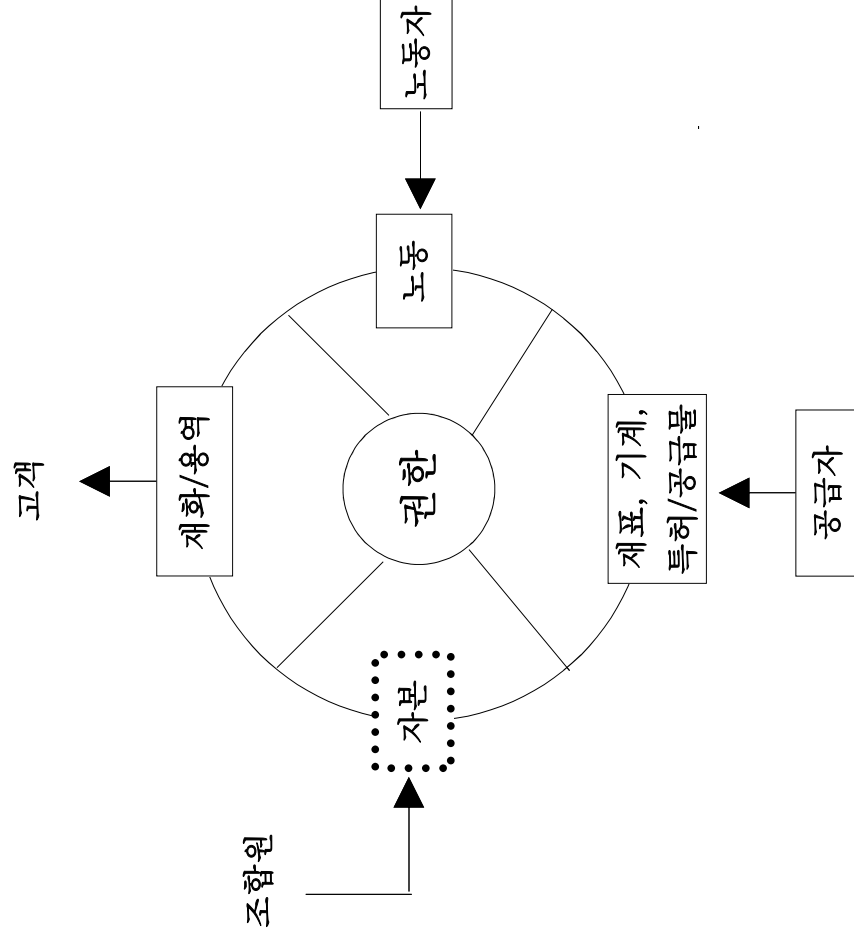
## 기업의 지배구조 1: 일반기업



### < 원칙 >

- 자본의 소유주(주요 주주)가 권한을 가짐.
- 표결은 자본의 취득에 따라(1주 1표).
- 사업의 결과는 주주에게 귀속.
- 각 주주는 기업의 일부분을 소유

## 기업의 지배구조 2 : 사회적경제 기업



### <원칙>

- 기업은 조합원에 속함
- 기업은 자본을 가지기도 하고(협동조합), 가지지 않기도 함(결사체, 공제조합)
- 표결은 민주주의의 원칙(1인 1표)
- 임원은 조합원(회원)의 다수에 의해 지명됨
- 사업결과는 기업에 속하며 조합원(회원)에 속하지 않음(비영리)
- 조합원(회원)은 자산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않음

**THE SOCIAL ECONOMY :  
THE WORLDWIDE MAKING  
OF A THIRD SECTOR**

Jacques Defourny  
Centre d'Economie Sociale  
University of Liège

&

Patrick Develtere  
HIVA  
Catholic University of  
Leuven

This text is the first chapter of a collective book entitled  
L'économie sociale au Nord et au Sud, compiled by  
J. Defourny, P. Develtere and B. Fonteneau (De Boeck, 1999).

# ***INDEX***

<b>Introduction</b>	<b>3</b>
<b>I. Sources of the social economy</b>	<b>4</b>
The association, a phenomenon as old as society itself	4
The ideological pluralism of the social economy in the XIX century	5
The range of religious influences	7
The forces of nationalism and the quest for a third way	8
The cultural entrenchment of the social economy	9
The complexion of a society is constantly changing	10
<b>II. A contemporary definition of the social economy</b>	<b>11</b>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11
The normative approach	15
Social economy or non-profit sector?	17
<b>III. Conditions for developing the social economy</b>	<b>23</b>
The social economy, child of necessity	23
The condition of necessity in the South	23
The condition of necessity in the North	24
Collective identity and shared destiny	25
Community forces in the South	26
What are the mobilising forces in the North?	28
<b>Conclusion</b>	<b>30</b>
<b>Bibliography</b>	<b>31</b>

## INTRODUCTION

The term "social economy" first appeared in France during the first third of the XIX century. For a long time, its meaning was much broader and amorphous than it is today. Anyone can develop their own *a priori* conception of the social economy, simply by placing more or less emphasis on either its economic or its social dimensions, both of which are wide-ranging. In the final analysis, any economic phenomenon that has a social dimension, and any social phenomenon that has an economic dimension, could be considered part of the social economy.<sup>1</sup>

On the global level, a much more precise conception of the social economy emerged over twenty years ago. Today, people are discovering or rediscovering a third sector that exists alongside the private, for-profit sector and the public sector, although its designation and definition may var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is is happening throughout Europe, North America, the transitional economi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in the nations of the Southern Hemisphere. There is no sharp, well-defined dividing line between this so-called third sector and the other two sectors, but its characteristics still set it apart.

The initial objective of this first chapter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social economy by putting it back in its historical context. The various forms of cooperative, mutualistic and associative organisations that today form the third sector are buried in the history of human society. Thus,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social economy, it is essential to reconstruct them as they evolved, and to understand the intellectual currents that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m, in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Second, in order to explain contemporary conditions in the third sector, we will examine the definition and origin of the social economy. We will also attempt to characterise the benefits and limitations of the social economy approach, especially compared to its Anglo-American counterpart, which is rooted in the concept of the non-profit sector.

In the final section, with a view of highlighting the main conditions allowing the social economy to emerge and grow, we will compare the contemporary revival of the social economy with older currents. Our objective is to identify the most powerful forces underlying the social economy.

---

<sup>1</sup> According to A. GUESLIN (1987), in the XIX Century, the social economy was "nothing other than a different approach to the problem of political economy" (p.3).

## I. *SOURCES OF THE SOCIAL ECONOMY*<sup>2</sup>

### **The association, a phenomenon as old as society itself**

While the main forms of the modern social economy took shape during the XIX century, its history dates back to the oldest forms of human association. Indeed, it is fair to say that the genesis of the social economy parallels to a large extent the gradual emergence over the centuries of freedom of association.

Corporations and collective relief funds already existed in the Egypt of the Pharaohs. The Greeks had their "religious brotherhoods" to ensure that they got a burial and to organise the funeral ritual, while the Romans formed craft guilds and *sodalitia*, which were relatively politicised fellowships or brotherhoods. With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monastic associations would become the refuge of primitive associationism throughout Europe, and of the arts, sciences and other customs. The associations included convents, monasteries, abbeys, priories, *commanderies* (small military monasteries), charterhouses and retreats.

The first guilds appeared in Germanic and Anglo-Saxon countries in the IX century, while brotherhoods first arose in the XI century. The latter were groups of lay persons who worked outside the confines of the monastery in meeting people's everyday needs, providing mutual aid, charity and various other types of assistance. Guilds and corporate associations developed from the XIV century onward and, in the most highly skilled trades, gradually assumed a measure of control over their labour markets.

Associations flourished during the medieval period.<sup>3</sup> They took various forms and had many names: brotherhoods, guilds, charities, fraternities, merchant associations, trade associations, communities, master associations, guild masterships and others. Moreover, it seems that associative forms and practices existed everywhere. For example, during the Tang dynasty (VII and VIII centuries) Chinese agriculture had its mutual aid societies, and in medieval Constantinople there were trade associations in the food sector. In addition, there were the post-medieval guilds of the Muslim world, the professional castes of India, and the craft brotherhoods and worker groups of precolonial Africa and pre-Columbian America.

Yet we should not be misled by this profusion of associations. For example, in Europe, a voluntary group could not exist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Church, the State or some other institutional power, unless it had a specific form with

---

<sup>2</sup> The first two parts of this section recapitulate and extend some of our previous work (DEFOURNY, 1992 a and b; Develtere, 1994).

<sup>3</sup> The historian, P. NOURRISSON (1920) even goes as far as to assert that "all the major achievements of political and economic life in the Middle Ages are based on forms of association".



strictly codified rules of admission and operation. Although they were subject to tight control, these associations were in reality State corporations – institutions of the feudal order – and enjoyed certain privileges. However, many forms of association survived or came into being on the fringes of this corporate monopoly with its rigid and hierarchical structures. Such associations worried the authorities, which continually tried to repress, subdue or ban them

Beginning in the XVIII century, England's *Friendly Societies* grew in number. Their goal was to provide their members with allowances in case of sickness or death. In return, members paid dues on a regular basis. These societies subsequently spread to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New Zealand. It was the Age of Enlightenment, and civil society was gaining new life: learned societies, literary and music circles, recreation organisations and kinship clubs sprung up alongside the charitable institutions inherited from the past. Throughout Europe, freemasonry proved to be very active, and numerous secret societies helped spread the new ideas that would find expression in the French Revolution of 1789. However, the spirit of the Revolution was, above all, one of individualism, and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soon clashed with freedom of association: forming an association meant either creating special-interest bodies representing long-standing privileges or creating centres for anti-establishment and subversive activity that needed to be repressed for the sake of a supposedly greater national interest.

Nevertheless, freedom of association started to make breakthroughs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England,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nd above all in the United States.<sup>4</sup> In France, the Revolution of 1848 and the insurrection of the Commune of 1871 gave rise to brief periods of freedom of association, although a law passed in 1810 would forbid the creation of any association of more than twenty persons unless it obtained prior authorisation from the State. Not until the end of XIX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the XX Century would laws provide a legal framework for the organisational forms (co-operatives, mutual societies and non-profit organisations) that make up the modern social economy.

## **The ideological pluralism of the social economy in the XIX century**

Numerous co-operative and mutualistic initiatives arose in the West, even before they had received legal recognition. Nineteenth-century worker and peasant associations were in fact inspired by several ideological currents that would have an

---

<sup>4</sup> In 1835, A. DE TOCQUEVILLE wrote with reference to the United States: "the most democratic nation on earth happens to be the one where men have, in these times, most perfected the art of commonly pursuing the object of their common desires, and have applied this new science to the greatest number of objects. The moral standards and intelligence of a democratic people, no less than its industry, would be endangered if the government took the place of associations everywhere ... In democratic nations, the science of association is the mother of all sciences: its progress has an impact on the progress of all the others".

impact on the entire evolution of the social economy. These currents emphasised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pluralism that would characterise the social economy from its origins to its modern incarnations.

Associationist socialism played a fundamental role in the utopian ideas of Owen, King, Fourier, Saint-Simon and Proudhon. Until 1870, the theorists of associationist socialism, who were, above all, promoters of producer co-operatives, even dominated the international workers' movement to the point where the social economy would often be identified with socialism. At first, even Karl Marx sympathised with the co-operative concept. But it was Marx's collectivist theories that would eventually win the day and a growing proportion of the workers' movement would deny the social economy a central role in the process of societal transformation. At best, it would remain, as it did for Jean Jaurès, a way to improve the lot of the poorest and educate them. It would also serve as a powerful tool for pooling resources and organising propaganda for the purposes of political combat.

Social Christianity, to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 Many initiatives originated with lower ranks of clergy and Christian communities. As for the contribution of the Church establishment, it was primarily the *Rerum Novarum* encyclical of 1891 that lent support to the social economy. Generally, social Christians of the XIX century looked to "special-interest bodies" in the hope that these might fight liberalism's weakness – the isolation of the individual, and the trap of Jacobinism – the attempt by the State to make an abstraction of the individual. Social Christians' support of these small bodies, together with their affirmation of individual autonomy, led to the concept of subsidiarity, according to which a higher authority should not take over any functions that a lower authority – that is, one closer to the user – was able to assume. F. G. Raiffeisen founded the first rural credit and savings unions in Germany on the basis of this philosophy.

A receptive attitude toward the social economy could also be found among certain liberal thinkers. Placing economic liberty above everything else and challenging possible meddling by the State, they insisted above all on the principle of self-help. They encouraged the formation by workers of mutual aid societies. Two leading figures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may be linked to this school of liberal thought, even though their positions are far from identical: L. Walras, for the importance that he attached to grassroots associations, and J. S. Mill for his suggestion that the pure wage system be replaced by workers' associations.

It is possible to cite yet other currents of thought, such as the "solidarism" of Charles Gide. But the main lesson to be learned here is that in Europe the modern social economy was forged, not by any single XIX century current of thought but, rather, by the interplay of its leading ideologies.

## The range of religious influences

We could demonstrate that this philosophical pluralism exists worldwide. However, we will simply highlight the great variety of religious, cultural and political influences that can be found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on which the social economy has drawn.

Within the Christian tradition, both Protestantism and Catholicism have sustained various co-operative and mutualist movements in North America. For example, Protestant Hutterite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ave for more than a century created numerous co-operative-type structures through which they have sought to promote modes of production and organisation consistent with their faith and community life. The influence of Catholicism has been especially important in the history of the Quebec co-operative movement. Again in Canada, this time in Nova Scotia, the Antigonish movement was formed by Catholic fishing communities to set up adult education co-operatives and thereby ensure their cultural and social emancipation.<sup>5</sup>

Since 1970, grassroots ecclesiastical communities in Latin America have formed the basis for a very dynamic trend within the Catholic Church, one that has resolutely stood by the people and the impoverished masses. The *basista* movement has been highly influenced by liberation theologians such as G. Gutierrez, and by the political pedagogy of P. Freire. Its economic and political options find particular expression i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and associations seeking to improve the daily lives of the disadvantaged.

Turning to Judaism, it is also apparent that the Zionist pioneers who, at the turn of the century, set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day Kibbutz movement, were inspired by the prophecies of major biblical figures. Although now highly institutionalised and integrated into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of Israel, the Kibbutz movement still serves as a laboratory for the application of Jewish religious principles.

Islam, too, is a leading source of numerous initiatives. For example, so-called Islamic banks seek to develop non-capitalist practices and refuse to charge interest on capital.<sup>6</sup> This sometimes translates into achievements closely related to the social economy.

---

<sup>5</sup> For communities of a Christian inspiration, and their economic organisation, see especially G. MELNYK (1985). We can also view the entire history of Monasticism from an economic standpoint and observe specific forms of social economy in the majority of today's monasteries.

<sup>6</sup> On this last point, we note a certain convergence of doctrines among several religions. Islamic tradition prohibits paying interest on loans (*riba*) and Judaism points to the Old Testament in forbidding interest. Christianity has always maintained a critical position on the question of rents and usury.

The *Grameen Bank*, in Bangladesh, is a good example of a project influenced by Islamic culture. This bank illustrates a liberating approach to Islam, emphasising the central role women should play in development, particularly economically disadvantaged women. Of course, in so doing, it conflicts with certain oppressive practices legitimised by other currents in Islamic thought. The *Grameen Bank* places particular emphasis on sixteen principles that every member must respect, including rejection of the practice of giving dowries.<sup>7</sup>

As is true of the religions already mentioned, Buddhism has many variant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identify a dominant socio-economic trend, there is a definite Buddhist influence in certain economic non-profit initiatives and in some types of voluntary participation and philanthropical customs very frequently observed in Asia. Volunteering and the quest for "just" action (Karma) are especially influenced by monastic initiatives that generate income for the poor. Such community-based initiatives are based not on profit but on the reciprocity inherent in gift-giving. According to Lohmann (1995), these practices may be viewed as forming the basis of a third sector in Asiatic culture.

### **The forces of nationalism and the quest for a third way**

The influence of religion on the social economy has not been free of ambiguity, and this is even more tr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economy and certain collectivist or nationalist ideologies. A variety of experiments, primarily of the co-operative type, have often been part of, or have been fuelled by, vast politically inspired undertakings.

This was particularly the case for a group of countries whose leaders sought to combine affirmation of national identity with experiments involving a "third path" to development – a middle way between capitalism and centralised socialism. An example is provided by the self-management schemes in the ex-Yugoslavia, which were supposed to concretely convey Communist Party principles with regard to social responsibility and worker participation.<sup>8</sup> Similar schemes may be found in various developing countries. One of the most remarkable examples is that of the Ujamaa socialism associated with Tanzanian President, J. Nyerere. His first goal was to terminate the domin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by Asian and European merchants. But in so doing he also sought both to root the Tanzanian economy in African community traditions and to modernise them. To this end,

---

<sup>7</sup> In this regard, see, for example, the autobiography of the founder of the Grameen Bank, M. YUNUS (1997).

<sup>8</sup> At first, it was a similar type of reasoning that legitimated the kolkhozes as emancipatory instruments of the small or landless peasants in the former USSR, or even in the people's communes of Mao's China. The debates with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on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such organisations testifies to the difficulty of evaluating the degree of independence granted to them by the State (BIRCHALL, 1997).

several principles were promoted as part of his national political agenda: collectiv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grouping people together in villages and working together.

At one time or another, various other post-colonial regimes have tried to integrate co-operative projects into their national development plans. The best documented experiments involved India, Velasco's Peru, Allende's Chile, Jamaica and Senegal. They all entailed government efforts to promote the co-operative sector. In many nations of the Southern Hemisphere, co-operative development was also an essential ingredient in the nationalist-populist discourse of the 1960s and 1970s.<sup>9</sup> It must nevertheless be stressed that in almost all cases, these State-directed socio-economic programs reflected broad political plans rather than the concerns of grassroots populations.

In other contexts, nationalist arguments served the cause of the social economy better when they constituted, often at a more local or regional level, a driving force behind the economic development that was led and controlled by local communities. Mondragon, which is located in the Basque region of Spain, is the prototype in this regard. Beginning in the 1950s, the local population started work on a truly co-operative industrial complex in order to rebuild the regional economy, which had been destroyed by the Civil War and the Second World War. Likewise, for the inhabitants of the Canadian Prairies, wheat pools, credit union networks, women's groups and various other social and cultural movements were the prime means of ensuring regional development and maintaining social cohesion in difficult circumstances.

## **The cultural entrenchment of the social economy**

The influence of religion, and of regional and national identity, is paralleled by that of cultural contexts as a whole. Since, by definition, the social economy is the upshot of groups and communities working at the local level, it is often highly affected by the specific culture of these groups and communities. Most of the examples noted above testify to this influence, but it is even more apparen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where, a multitude of initiatives in the informal economy are shaped by the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s of the players involved, outside any formal legal framework.

Razeto (1991), in his work on Latin America, and authors whose works have been published under the aegis of the *Network Cultures and Development*, have amply demonstrated the cultural entrenchment of the social economy in the South.<sup>10</sup>

---

<sup>9</sup> In the 1970s, Guyana (South America) was even renamed the Cooperative Republic.

<sup>10</sup> For studies published by the Network on Africa, see, for example, the collective work edited by I.P. Laleye et al (1996).

Their analyses underline the importance of reciprocal relations and the sense of belonging that are found in traditional societies, and their impact on collective action. Relations of this type are far removed from those that prevail in organised capitalist environments. Some go as far as to maintain that the revival of an informal social economy in Africa reflects the fact that its peoples are fundamentally at odds with the capitalist standards conveyed by Western culture. In their view, this atypical economy could provide a vehicle for liberating traditional culture from the yoke imposed by external forces.

### **The complexion of a society is constantly changing**

The reader will have gathered from the foregoing that since the social economy is the result of initiatives taken collectively by local communities, then, logically, it will often be affected by the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values of these communities.<sup>11</sup> Moreover, this complexion is constantly changing as new concerns surface and mobilise civil society. In the West, but also in the South, ecological movements and propon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re today generating new types of co-operatives and mutual aid organisations which aim to implement ecological principles through recycling, balanced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ven socially and ecologically responsible tourism.

A number of other variations on this theme could be identified, particularly in the South. Noteworthy are the indigenous communities and various protest movements that express their aspirations through project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social economy.

To conclude this exploration of the sources of the social economy,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that, as we continue to probe this concept in the sections below, we will encounter ethical reference points or sets of values that are shared and articulated by groups of individuals through their economic activities. In this sense, the social economy differs radically from organisational modes whose sole reference point is the market, are supposed to depend on the pursuit of individual interest and function beyond the pale of every collective norm.<sup>12</sup>

---

<sup>11</sup> In some countries, most co-operative and mutualist movements identify, sometimes explicitly, with a particular philosophical or ideological current. They occasionally develop more or less autonomous and competitive pillars.

<sup>12</sup> In fact, as B. PERRET and G. ROUSTANG (1993) note, following authors such as L. Dumont, the market economy too is inextricably linked to values, particularly modern individualism but also democracy. Nonetheless, the cultural and even ethical assumptions of liberalism (see Adam Smith's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are today increasingly ignored by his sycophants, who tend to be blinded by the self-regulatory and supposedly self-sufficient character of the market.

## II. A CONTEMPORARY DEFINITION OF THE SOCIAL ECONOMY

Let us now examine how the social economy concept takes into account the multiple realities that we have just discussed and those that have followed in their path. There are currently two main approaches to understanding the social economy. Combining the two yields the most satisfactory definition of the third sector.

###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The first approach to delimiting the social economy consists in identifying the main legal and institutional forms through which most third sector initiatives flow. For about the last hundred years, three major types of organisations have accounted for the three main legal and institutional components of the social economy in industrial countries: co-operative enterprises, mutual aid societies and organisations whose legal status varies tremendousl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but which all fall under the generic title "association".

This first approach has very specific historical roots. It allows us to examine organisations that gradually achieved legal recognition for activities based on the free association of their members and which, for a large part of the XIX century, remained unofficial and even secret.

Charles Gide was the first to give these organisations a central place in the social economy, whose meaning in 1900 was nonetheless still quite broad.<sup>13</sup> During the 1970s, when the French co-operative, mutualist and associative movements rediscovered their common traits, they would appropriate his vision and thus reaffirm their kinship. They gave a collective title, "social economy" to the family of movements they had thereby formed, and in so doing set an entire process in motion, one that has led to increasing institutional recognition for the third sector.<sup>14</sup>

While this first approach was forged in France, its relevance reaches far beyond the borders of this country, since we find the three principal elements of the social economy practically everywhere:

---

<sup>13</sup> At the 1900 Paris World Fair the social economy had its own pavilion, which Charles Gide described as a "cathedral". He wrote: "In the large aisle, I would put all forms of free association that help the working class free itself through its own means ... " (quoted by A. GUESLIN, 1987, p. 5).

<sup>14</sup> For example, in 1981 the French government established an interministerial delegation on the social economy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Economie Sociale*), which was at times headed up by a secretariat on the social economy (*Secrétariat d'Etat à l'économie sociale*).

1. *Co-operative Enterprises*. The project started by the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sup>15</sup> spread rapidly and is now found all over the world, with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bringing together more than 750 million co-operators on the five continents.<sup>16</sup> Moreover, cooperativism has become extremely diversified, and includes agricultural, savings, credit, consumer, insurance, marketing, worker, housing, social and other types of co-operatives. It is nevertheless important to avoid any "fundamentalist" vision of cooperativism. Indeed, apart from certain co-operative organisations and movements not affiliated to the ICA, this first component of the social economy is also composed of various types of initiatives, primarily in the South, that do not have an explicitly co-operative status or label, but have rules and practises that resemble those of co-operatives. This is particularly true of many producer unions and associations, groups of peasants, craftsmen and fishermen, and numerous credit unions, not to mention organisations that are culturally or linguistically based. Also, in industrialised countries, there are enterprises that have a co-operative or social function, but are not co-operative in form. These too may be included as part of the first principal component.
2. *Mutual benefit societies*. As discussed above, organisations for mutual aid have existed for a very long time just about everywhere. They gradually institutionalised and came to play a major role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s of various industrialised countries. In Europe, many of them have been brought together under the aegis of the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la Mutualité* (AIM). Together they have more than 66 million individual members and around 110 million beneficiaries.<sup>17</sup> On a world scale, however, the AIM cannot claim to represent the entire mutualist element of the social economy, and in this respect is even less representative than the ACI. Besides the fact that it is found in far fewer countries, it limits its focus to health insurance and health and social services, with mutual insurance companies providing coverage for various other risks. But it has a more basic function in countries where social security systems are still embryonic and reach only a small part of the population. Here, the mutualist component includes a multitude of organisations with a wide variety of names<sup>18</sup> that respond to the need of local communities to organise mutual aid on their own. They share diverse risks ranging from those that are linked to health (health care costs, medication purchases, hospital expenses), death (material support for the family of the deceased), funerals (returning the body to its home town, paying for funeral or religious rites), poor harvests, poor fish catches (compensation and support), etc.

---

<sup>15</sup> The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 was founded in 1844 near Manchester, England, by a group of weavers whose statutes constituted the first expression of principles which, though they have since been revised, continue to inspire the world cooperative movement.

<sup>16</sup> For an up-to-date history of ICA membership, see the recent summary by D. MIGNOT, J. DEFOURNY and A. LECLERC (1999).

<sup>17</sup> In this sector, they are usually referred to as "entitled persons" or "rightful beneficiaries".

<sup>18</sup> Very often, these names originate in the local culture and invoke values and practices associated with community solidarity.



3. *Associations.* Freedom of association is today formally recognised in most of the world, but it is expressed through extremely varied legal forms and in environments exhibiting varying degrees of acceptance of such undertakings. In practice, this component encompasses together all other forms of individual freedom of association that aim to produce goods or services but whose primary objective is not profit.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these forms too have a broad variety of names. Among the designations we find not-for-profit organisations and associations, voluntary organis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Furthermore, country-specific foundations and organisations, such as the English charities, are frequently associated with this component.

There is a flagrant lack of precise statistical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last component. In fact, there are even fewer statistics in this category than for the other two components. Nevertheless, considerable efforts have been made over the last ten years to increase our knowledge of associations,<sup>19</sup> and particularly of the non-profit sector which, as suggested by a vast research program co-ordinated by Johns Hopkins University, accounts for most of the association component of the social economy and a part of the mutual aid component.<sup>20</sup> The latest findings of this program reveal that among the 22 countries examined most closely by the study, the non-profit sector accounts for about 18.8 million jobs<sup>21</sup> and involves 28 per cent of the population in various types of volunteer work.<sup>22</sup>

It must be reiterated that the three components under consideration each hav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operating mechanisms. While the following table does not take all these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it nevertheless compares and contrasts the basic general traits of the three main institutional types that make up the social economy.

We must be wary here of simplistic analyses that entrench the mechanisms described in the table: the lines of demarcation separating the three components are neither sharp nor immovable, especially in countries where such distinctions are not legally recognised. For example, projects combining the functions of a savings and credit co-operative with those of a mutual health insurance society are flourishing in the South.<sup>23</sup>

While this first approach to the social economy is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major institutional types, it does not involve any precise, formal legal framework. To be sure, wherever researchers gather statistical data, the legal

---

<sup>19</sup> It should be added that the first studies to identify the contours of the social economy from a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and to quantify its three components, were carried out by a group of researchers from eleven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These studies came under the patronage of the International Center of Research and Information on the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y (CIRIEC) (J. DEFOURNY and J. L. MONZÓN CAMPOS, 1992).

<sup>20</sup> At least the entities that have a legal personality (see further on).

<sup>21</sup> The contribution of the non-profit sector to employment varies greatly, but it can surpass 10 per cent in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Ireland and Belgium.

<sup>22</sup> L. SALAMON, H. ANHEIER et al (1998).

<sup>23</sup> They are quite often referred to generically as mutual and cooperative banks.

character of organisations proves to be an essential reference point. But within the perspective that we have adopted, we may also associate the three components with projects that are informal as well as sustainable. This point is very important, since there are numerous *de facto* associations in the industrialised countries, and even a greater number of informal activities in the South, that are related to co-operatives (sometimes referred to as "pre-co-operatives"), mutual aid societies and associations.

**Table 1** The main operating mechanisms of the social economy

	Association	Mutuelle	Coopérative
Role	Provides services to its members and/or to the wider community	Provides services to its members and family dependants	Provides goods and services to its members and, in certain circumstances, to the community at large
Product types and benefits	Generally non-market goods and services, but also of the market-based type with increasing frequency. Depending on the implementation methods, which vary a great deal, both members and the community may take advantage of the goods and services.	Essentially non-market services. Members benefit from these services according to their needs.	Market goods and services. Each member benefits from these goods and service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transactions he or she carries out with the co-operative (e.g. bonus for members using the services).
Membership	Private individuals or corporate entities	Private individuals only	Private individuals or corporate entities
Division of power	The principle of "one person, one vote" is applied at general assembly.	The principle of "one person, one vote" is applied at general meetings of the membership.	The principle of "one person, one vote" is applied at general meetings of the membership.
Financing	Dues and/or donations. When members resign, their dues are not reimbursed	Dues paid at regular intervals. When members resign, their dues are not reimbursed	Subscriptions to capital shares and/or contributions made at regular intervals. When members resign, they recover their financial contribution.
Distribution of surplus	Never distributed to members  Must be reinvested in a socially useful way	Never distributed to members  May serve as a reserve fund and/or to lower dues and/or to increase benefits.	Partially refunded to members  May serve as a reserve fund to improve services or further develop co-operative activity

## The normative approach

The second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social economy consists in highlighting the common principles of its various elements. Stated differently, it consists in showing as precisely as possible why we can give the same designation to enterprises which, in the final analysis, are very diverse, and how as a group they differ from the traditional private and public sectors.

Today, there is wide consensus that in order to bring out the characteristics shared by enterprises we must examine their production objectives and internal organisational methods. There are, to be sure, numerous ways to formulate such characteristics. For this volume, we have selected an approach considered authoritative in contexts as varied as Belgium, Spain and Quebec.<sup>24</sup> Given that in these countries and regions, the analysis of the social economy has been pushed the farthest, it stands to reason that any consensus on their part regarding the discussion at hand will further extend its influence. Moreover, the definition of the social economy by researchers in those countries is based on a blending of the legal-institutional approach noted above and the promotion of values and principles that govern the third sector (the normative or ethical approach). The upshot is that while an organisation may attain co-operative, mutualist or associative status – a significant step toward joining the social economy – this in itself does not guarantee that it will become part of the third sector.<sup>25</sup>

We define the social economy as follows: “The social economy includes all economic activities conducted by enterprises, primarily co-operatives, associations and mutual benefit societies, whose ethics convey the following principles:

1. *placing service to its members or to the community ahead of profit;*
2. *autonomous management;*
3. *a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4. *the primacy of people and work over capital in the distribution of revenues.*

The fact that the objective of the social economy is to provide services to its members or to a wider community, and not serve as a tool in the service of capital investment, is particularly important.<sup>26</sup> The generation of a surplus is therefore a means to providing a service, not the main driving force behind the economic activity.

Autonomy in management distinguishes the social economy from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by governments. Indeed, public sector activity does not generally enjoy the broad independence that informs the basic motivation behind every associative relationship.

---

<sup>24</sup> See, for example, the *Libro Blanco de la Economía Social*, a 1991 white paper written for the Spanish government, the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introduced in 1996 by the Government of Quebec and the recent report of Belgium's *Conseil Supérieur de l'Emploi* (1998).

<sup>25</sup> In certain countries, enterprises are frequently co-operative in name only, either because legislators see cooperatives as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other commercial entities, or because the State has placed them under tight supervision. Similarly, an associative or mutualist status sometimes provides a legal cover for para-public agencies and for-profit economic activities.

<sup>26</sup> This opening to other and wider publics is more explicit in the co-operatives.

Democrac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fers theoretically to the rule of "one person, one vote" (and not "one share, one vote"), or at least to a strict limit on the number of votes per member in self-governing organisations.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actual practices are quite diverse in nature, particularly in the South, this principle shows above all that membership and involvement in decision making are not primarily functions of the amount of capital owned, as they are in mainstream enterprises.

The fourth and last principle, the primacy of people and work in the distribution of revenues, covers a wide range of practices within enterprises of the social economy: limited return on capital; the distribution of surpluses, in the form of refunds, among workers or user-members; the setting aside of surpluses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projects; immediate allocation of surpluses toward socially useful objectives, and so on.

As one might expect, these principl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already highlighted in Table 1 above. They nonetheless form a more coherent expression of the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the social economy as a whole.

The preceding conceptual refinements demonstrate that the social economy is not circumscribed by specific branches of activity and that *any* type of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can be organised *a priori*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ocial economy. Moreover, the social econom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o-operatives) is just as present in market activities, such as agriculture, crafts, industry, finance and distribution, as it is in non-market or partly non-market activities (particularly those involving associations and organisations based on the mutual aid principle), found in areas such as health, culture, education, recreation, social service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Social economy or non-profit sector?

In the Anglo-Saxon world, it is primarily the *non-profit organisation* (NPO) and the *non-profit sector*<sup>27</sup> which have revived interest in the third sector. Consequently, it is useful to point out their contribution to social economy analysis. While this contribution is limited, it facilitates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we have selected.

---

<sup>27</sup> Most studies published in journals such as th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and *Voluntas* take this approach.

We begin with an explanation of the term *non-profit sector*. As defined by the Johns Hopkins study already cited,<sup>28</sup> this sector includes organisations (NPOs) with the following features:

- they have a formal or official character, that is, they are institutionalised to some degree, which also implies that, generally speaking, they have a legal personality;
- they are private, that is, distinct from the State and from organisations directly linked to government;
- they are independent, in the sense that they must establish their own rules and decision-making authority;
- they are not allowed to distribute profits to their members or managers. This obligation to refrain from profit distribution is a constant refrain in the literature on NPOs;
- their activities must involve volunteers and donors, and membership must be voluntary.

Comparing the above definition with that of the social economy brings out striking similarities between the two:<sup>29</sup> the formal framework criterion echoes that of the legal-institutional approach, even though the latter emphasises only three types of statutes;<sup>30</sup> implicitly, the private character of NPOs is also found in the legal-institutional approach, since private legal status is generally involved; the criterion of NPO independence is very close to that of autonomy of management in the social economy; the final criterion that must be met by NPOs, one that has been influenced by the British tradition of voluntarism, is in practice met by most organisations in the social economy.<sup>31</sup>

There are two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pproaches. (1) The "social economy" approach emphasises democratic processes in organisations, whereas we find nothing of the sort in the non-profit approach. (2) The non-profit approach, by prohibiting distribution of profits, excludes practically the entire co-operative component of the social economy, since co-operatives generally redistribute a share of their surplus to members. It also eliminates part of the mutual aid component, since some mutual insurance organisations refund surpluses to their members in the form of lower premiums.

The differences may be summarised as follows: the conceptual centre of gravity of the not-for-profit approach is found in the prohibition of distribution of

---

<sup>28</sup> See SALAMON L. and ANHEIER H. (1997).

<sup>29</sup> For this type of convergence, see also E. ARCHAMBAULT (1996).

<sup>30</sup> In practice, most NPOs have a status which allows them to be classified as associative or mutualist, as long as these elements are understood in the broad sense noted above.

<sup>31</sup> Cooperative, mutualist and associative statutes generally stipulate that membership is voluntary. Most of the time, the directors of these organisations serve on a voluntary basis.

profits, and this is key to an understanding of non-profit associations, whereas the concept of the social economy relies heavily on co-operative principles, based primarily on the search for economic democracy.<sup>32</sup>

How are these differences relevant to our objective here? Do they favour one approach or the other? We can identify four main reasons justifying our preference for the social economy approach.

First, the stipulation that profits not be distributed seems much too restrictive for the trends in developing country of interest to us here. In fact, in industrialised countries, this stipulation, which constitutes the core of the non-profit approach, usually provides a way to obtain tax advantages. Since these advantages have in many cases been enacted in legislation, it is easy to spot organisations who comply with the non-profit criterion and benefit from the advantages. Thus, the operational force of the criterion makes it all the more compelling. By contrast, in countries of the Southern Hemisphere, tax legislation affects local community organisations much less, so the notion of non-distribution of earnings loses much of its meaning. Local organisations in the South that realise profits distribute them in a variety of ways since improvements in the living conditions of its members is often their major objective. Hence, the North's apparently clear line of demarcation between co-operatives and associations is somewhat blurred when applied to conditions in the South, and it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to exclude co-operatives from our framework.

A second explanation for our choice stems from the fact that even in the industrialised countries the new collective entrepreneurship in civil society operates within co-operative legal frameworks or emphasise their non-profit nature. Thus, initiatives that are increasingly being labelled "social enterprises", and that are springing up all over Europe,<sup>33</sup> tend to choose co-operative status if they are located in Finland, Portugal, Spain or Italy. However, they usually become non-profit associations, or something similar, if they are located in most other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Comparable distinctions are often evident in what many Anglo-Saxon countries cal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sup>34</sup> In recent years, we have seen national legislation in several countries recognise new forms of "social co-operatives" (Italy, Portugal) and "enterprises with a social purpose" (Belgium). In both cases they deliberately blend commercial ventures that have a co-operative dimension with social objectives that more closely resemble those espoused by traditional NPOs. Stated differently, within the European Union, but also in other areas of the Western world (particularly Canada), the cleavage between co-operatives and NPOs once

---

<sup>32</sup> P. LAMBERT (1964) has written a reference work on cooperative principles. For the link between the social economy and co-operative thinking, see, for example, M. MARÉE and M.-A. SAIVE (1983).

<sup>33</sup> See the European Network EMES (1999) studies on the rise of social enterprises throughout the European Union.

<sup>34</sup> See, for example, J.A. CHRISTENSON and J.W. ROBINSON (1989), French-speaking Canadians employ the expressio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développement économique communautaire*). See: L. FAVREAU and B. LEVESQUE (1996).

again appears overstated, unless we take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ur principal point of reference.

Some will no doubt object that co-operatives in the industrialised countries have in many instances changed so much that they are practically indistinguishable from mainstream private enterprises, and that their ties with not-for-profit associations seem to have completely disappeared. We have already conceded this point but nonetheless find it impossible to ignore all the undertakings that have managed to maintain genuinely co-operative characteristics.

The second explanation may also apply to the situation in the South. Here, the increasing number of practices that draw on the principle of "not for profit but for service"<sup>35</sup> take on a very wide variety of organisational forms. Some of them resemble co-operative models (credit unions, for example), while others are reminiscent of associations (NGOs and trusts, to name only two).

Third, the "social economy" approach more accurately reflects, in our view, the socio-political dimension of the organisations involved, and the closeness of the ties that they maintain with a wider movement or project.<sup>36</sup> The definition of NPOs, which stresses the voluntary nature of members' involvement, also implies that members have bought into the organisation's plans. The point is, however, that such plans are usually considered in a relatively isolated fashion, one that is almost exclusively micro-economic or micro-social.<sup>37</sup>

The issue here has nothing to do with making the reference data fit into some broad ideological view. For the social dynamics of each situation vary considerably according to the period, place and sector of activity. Yet we cannot deny that very often even the most "micro" of projects seem to end up as part of a framework for social change. This was evident in nineteenth-century Europe, when worker and peasant movements were the mainstay of co-operatives and mutual aid societies. It is still true for numerous economic activities driven by movements such as those concerned with the environment, development co-operation, fair trade practices, ethical investment, the struggle against social exclusion, and women's liberation. And how should we approach the developing countries, where most co-operative, mutual aid and associative projects are the expression of a civil society increasingly determined to shape its own destiny and political future?

---

<sup>35</sup> At first, this principle was promoted primarily by the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WOCCU), but its influence today extends well beyond the frontiers of this movement.

<sup>36</sup> As P. Develtere (1998) emphasises, in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organisations of the social economy do not only provide a framework for voluntary participation (praxis), but generally also convey a normative vision of society (the ideological dimension) and provide an organisational instrument for carrying out a societal projet.

<sup>37</sup> It is revealing that the abbreviation "NPO" (non-profit organisation), and not "NPS" (non-profit sector) has established itself in this approach. It stands in contrast to the expression "social economy", which immediately suggests a more comprehensive outlook.



The fourth, and last, explanation relates to the soundness and pragmatism of the "social economy" perspective. On a strictly scientific level, the criteria underlying its normative or ethical approach do not appear to be any less rigorous than those that have enabled us to analyse the NPOs. In addition, by dividing the social economy into three large organisational categories, two of which – co-operatives and mutual societies – have international structures,<sup>38</sup> the legal-institutional approach provides the social economy with greater historical depth and a global perspective. Moreover, the social economy is represented primarily by co-operatives, mutual societies and associations, and it is because of this triad that the social economy is gaining increasing recognition from national and supranational authorit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an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Let us now compare the limitations of the social economy and the non-profit sector. First, since the former is wider in scope than the latter, organisations in the social economy will be more diverse. We have already mentioned the weakening of links among certain organisations of the social economy. Still, is there any less diversity within the "private sector", in which both the neighbourhood shop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seem to find a home?

For our part, we are convinced that the main drawback of the social economy concept is terminological and linguistic. Owing to the international dominance of English, the term "non-profit" does not generally require an equivalent in other languages, whereas this is not the case when it comes to the term "social economy". Either it proves difficult to translate the latter expression into certain languages or the literal translations denote different types of reality.<sup>39</sup> There are two ways to resolve this problem. The first consists in referring instead to a "third sector", as researchers working in this area do on a regular basis.<sup>40</sup> The second, less elegant but more explicit, consists in stringing together the components of the social economy, each of which is translated according to its context. Using this approach, the European Commission officially launched its *Comité Consultatif des Coopératives, Mutualités, Associations et Fondations* (Advisory Committee on Co-operatives, Mutual Societies,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in 1998.

So as to get the conceptual refinements and terminological questions out of the way, we will end this section by noting that even in French and Spanish, the expressions *économie solidaire* and *economía solidaria* occasionally compete with the designation *économie sociale* (*economía social*), sometimes even completely replacing it, as occurs in certain regions of Latin America.<sup>41</sup> Even though they introduce a slightly different slant, these concepts do not really deviate from the meaning of social

---

<sup>38</sup> The associative element also comprises a number of international groups, but these are generally limited to specific sectors.

<sup>39</sup> In German, for example, *Soziale Marktwirtschaft* (the market social economy) refers to the overall economic model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up>40</sup> For some, "third sector" is the exact equivalent of "social economy", while for others it is the same as "non-profit sector".

<sup>41</sup> See J.-L. LAVILLE (1994) and L. RAZETO (1991).

economy. The *économie solidaire* refers primarily to the most innovative or recent developments in the social economy. In this sense, it is akin to "the new social economy" and can only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third sector.<sup>42</sup>

---

<sup>42</sup> In Quebec, researchers sometimes refer to an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the social and solidarity-based economy) so as to avoid having to choose between the two expressions.

### **III. CONDITIONS FOR DEVELOPING THE SOCIAL ECONOMY**

It will be understood from the preceding discussion that while this analysis seeks to give prominence to the “emerging” or “incipient” social economy, rather than to its older, more entrenched forms, we do not wish to create a cleavage between the two. Furthermore, by comparing different waves of initiatives over the last two centuries, we can learn several essential lessons about conditions that favour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sup>43</sup> These conditions provide us with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resent situation.

#### **The social economy, child of necessity**

The first thing that history teaches us about co-operatives, mutual societies and associations is that they are born of pressures resulting from significant unsatisfied needs and that they address acute problems. Put succinctly, they respond to a "condition of necessity".

The fraternal funds that appeared throughout the West in the XIX century were initiated by industrial workers and peasants whose living conditions were precarious and who had little access to health care. Consumer co-operatives were the result of collective efforts by people of meagre means seeking to purchase their food at a discount. As for producers' co-operatives – today we refer to them as workers' co-operatives – they represented a reaction by skilled tradesmen. These artisans sought to preserve their trades and remain masters of their work, instead of becoming locked into wage-earning, which in no way provided the social benefits we know today and totally prevented them from controlling the tools of their trade. In addition, we should not overlook those who were simply thrown out of work by changes in capitalism and sometimes attempted to deal with their predicament by creating their own businesses.

The entire XIX century and the first half of the XX century are replete with similar examples: when people were jolted by economic or socio-economic conditions, they demonstrated solidarity and set up enterprises in the social economy. Today, this condition of necessity still prevails, in the South as well as the North.

#### **The condition of necessity in the South**

The prior experience of the North resonates very strongly in the South and the developments that have taken place there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re too, the condition of necessity generates a host of projects. For example, the withdrawal

---

<sup>43</sup> Actually, we are extending an analysis initially conducted on cooperatives alone to the entire social economy (J. DEFOURNY, 1995).

of the State from the health sector – a phenomenon very closely associated with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 has driven this sector into the "arms of the market". Consequently, the sick themselves must frequently pay, in whole or in part, for the care and medication they receive. Moreover, the quality of care delivered to the vast majority of people has deteriorated. As a result, people everywhere have reacted by initiating social economy projects that will ensure community-based funding of health services. During the African harvest, for example, peasants are increasingly pooling their cash or in-kind resources in order to cover the costs related to sickness or death. Also, social movements already in place, such as churches, unions and NGOs, have set up mutual aid services as a complement to self-help initiatives. In Latin America too, health care has become fertile ground for developing the new social economy. Thanks to a mutual aid tradition that is already quite old, new projects have taken root, perhaps faster than elsewhere, and have become important social players. This is true not only of mutual aid and social insurance initiatives, but also of primary health care services, which have surfaced on a community or co-operative basis in working-class neighbourhoods.<sup>44</sup>

Many other sectors besides the health sector offer examples demonstrating the pervasiveness of the condition of necessity in the South and of the extent to which people are driven to take charge of their lives. For example, the merciless Sahelian environment was the main factor in the growth of Naam groups in West Africa. Through 3000 co-operatives and associations, this movement has led hundreds of villagers to seek "development without destruction"<sup>45</sup> of natural resources. On every continent there is an increase in projects including co-operative irrigation, grain banks, community kitchens, credit unions and marketing co-operatives for agricultural and craft production. There are also numerous organisations that do not limit themselves to a single field, but formulate collective responses to the complete spectrum of people's most vital needs.

### **The condition of necessity in the North**

In many respects, the drive to act based on necessity applies to similar situations in most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ere profound changes to the economy leave many basic needs unsatisfied. No longer able to count on an omnipresent State, citizens are rediscovering the social economy. However, they often give their projects names other than terms like "co-operative", because they had been appropriated by communist regimes in order to legitimise their system.

Obviously, the "condition of necessity" also exists in the industrialised countries of the West, although it is much more acute now than it was twenty or

---

<sup>44</sup> Among the numerous examples, we could cite Columbia's *empresas solidarias de salud* (community-based health organisations that bring together a variety of local partners, including local authorities and neighbourhood committees and projects) and Brazil's Unimed, which is made up of over 300 cooperatives and 70 000 health workers.

<sup>45</sup> This is the slogan of the movement.

twenty-five years ago.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decline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unemployment crisis, many people who were previously protected now have new needs that have to be met. Generally speaking, new social demands are now being made, demands which the market and public intervention cannot meet, or can no longer meet adequately. These demands are opening up new fields in which the social economy seems to offer the only, or one of the few possible solutions.<sup>46</sup> Demands include those for professional requalification and reintegration by people who have been marginalised on the labour market; economic rehabilitation of disadvantaged urban neighbourhoods, and even revitalisation of deserted rural areas. Many organisational forms have appeare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as a response to growing and painfully obvious needs. Examples include France's companies specialising in labour market re-entry, special-interest associations and local neighbourhood councils; Italy's "social co-operatives"; Germany's employment and training corporations;<sup>47</sup> Belgium's on-the-job training companies and community workshops,<sup>48</sup> the United Kingdom's community businesses and Canada's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 These are some of the organisational forms that have arisen during the last two decades in response to increasingly crying needs.<sup>49</sup>

The list of contemporary challenges that give rise to the new social economy could be extended even further: the growing number of "new poor" and homeless, juvenile delinquency, the isolation of the elderly, the inadequacy of early childhood facilities, the failure of the educational system,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and so forth.

## Collective identity and shared destiny

While the social economy may have been born of necessity, it still has a long way to go. It could play a much stronger role among the most marginalised groups in countries of the North and the poorest populations in the South. Instead, individual survival strategies predominate in many of these environments, particularly in large cities. In fact, the history of the social economy teaches us that it is driven by a second force, one that is as powerful and as vital as the first: membership in a social group unified by a collective identity or shared destiny. For example, during the XIX century and the first half of the XX century, the dynamic social economy reflected a class culture that was, to be sure, dominated, but which showed considerable solidarity.

---

<sup>46</sup> A large part of the literature on non-profit organizations places an emphasis on NPO responses to market failure or State failure.

<sup>47</sup>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 (BQG).

<sup>48</sup> *Sociale Werkplaatsen*.

<sup>49</sup> For an evaluation at the global level of the new social economy's concern with professional reintegration, see J. DEFOURNY, L. FAVREAU and J.-L. LAVILLE (1998).

In industrial areas, the bonds that united members of co-operatives, mutual aid societies and other worker associations were their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their folk cultures and the struggles that allowed them to experience what Touraine has called "the unifying power of conflict". This concept helps to explain why movements that saw themselves as levers of societal transformation supported the social economy.

A parallel analysis of the rural social economy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mutual aid societies, rural credit unions, peasant associations, etc.) produces similar results. In many instances, the tenacity of the more traditional social and cultural forces (driven by religion, family values and village identity) provided sufficient social cohesion for collective projects of the co-operative or mutualist type to emerge in the countryside. But certain extraordinary success stories reveal even more clearly the importance of collective identity as an underlying factor in the rise of the social economy. For example, about one hundred years ago, the Desjardins co-operative movement in Quebec created numerous rural credit unions that still form the principal banking network in the *Belle Province*. This may be attributable to the will of an entire people to defend its French-speaking and Catholic identity in the face of the Anglo-Saxon Protestant domination that prevailed throughout North America. In Belgium, the story of the Flemish agricultural co-operatives, which are still very powerful today, may be understood in a similar way: the small farmers, who spoke only Flemish, sought to improve their living conditions and simultaneously assert their identity in an environment dominated by a French-speaking bourgeoisie and nobility.

In fact, these illustrations hark back to our earlier analysis on the sources of the social economy, an analysis which underscored the potential of movements based on shared belief systems (such as the Kibbutz movement, Protestant Hutterite communities and local communities in Latin America) or on threatened national identity. There can be no doubt that the affirmation of Basque identity in the face of Castilian hegemony constituted a fundamental force in the birth and growth of the Mondragón co-operative complex, even though the tremendous need for post-war reconstruction was also a contributing factor.

### **Community forces in the South**

The importance of "collective identity" may be illustrated by providing examples where the opposite holds true. Co-operative projects in the South during the colonial and post-colonial periods, and in the communist regimes of the former Eastern bloc, provide such examples. Over several decades, governments in these regions tried in vain to build a paragonovernmental co-operative sector. Governmental authorities, rather than members, invested capital in the co-operatives. The work itself was performed by civil servants, though it could not really replace the commitment of member-volunteers. In addition, the co-operatives and other "mass" organisations controlled from afar by the authorities had very little to do with one

another. In order to operationalise their national economic objectives, governments preferred to deal with a fragmented sector that was unlikely to evolve toward any real social or political movement, but which nevertheless offered a channel for reaching and "activating" certain target groups.

To be sure, in statistical terms these so-called co-operative projects occasionally achieved impressive results,<sup>50</sup> and it is also true that the level of centralisation varied enormous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Nonetheless, starting in the 1970s, certain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organisations increasingly criticised this "top-down" approach.<sup>51</sup> Indeed, these projects had very serious economic and organisational limitations, so that when it came to mobilising local resources, the efforts of the authorities did not yield the expected results; on the contrary, they seemed to stifle all initiative, and the organisations failed to develop any real life of their own.

One should always be wary of making hasty generalisations, but a number of points lead us to conclude that for the last decade or two a completely different type of social economy – one that is genuinely community based – has been emerging and that it is now stronger than ever. More often than not, projects are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social movements or arise from local village conditions. They are now developing almost entirely beyond the pale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formal and informal sectors simultaneously. Compared with previous periods, they are working in a much wider variety of fields and, in cases where groups experience significant and rapid growth, their operations usually remain quite decentralised, with their local branches serving as focal points.

Such factors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cohesiveness of these groups and strengthen group members' sense of collective identity. The identity already exists by virtue of members belonging to the same village community or through having experienced very similar socio-economic conditions. This sort of homogeneity is found, for example, in the interdependent groups of the *Grameen Bank*; these groups comprise very poor women with no other possible access to credit, apart from that offered by usurers. The resulting "community of shared destiny" is not static. On the contrary, it is the driving force behind a very dynamic process: not only is the entire group held accountable for repaying the loans granted to each member, but the women must also commit to making collective progress in literacy, health and hygiene and other areas.

---

<sup>50</sup> In 1959, Great Britain had more than 10,000 cooperatives on record in its colonies of the period, accounting for a membership of over one million. A decade later, Africa already had some 2 million cooperators. When Latin America embarked on its golden era of cooperative populism, which lasted from 1950 to 1970, the number of cooperatives had already risen from 7,500 to 25,700, and membership from 2 million to almost 10 million. Asia recorded even more spectacular results; by the end of the 1970s, it had more than 400,000 cooperatives totalling nearly 75 million members.

<sup>51</sup> See, for example, the studies conducted from 1969 to 1974 by th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RISD).

## What are the mobilising forces in the North?

Can the framework used for analysing the basic forces that drive the social economy be applied to the current revival of the concept in the industrialised countries? While the pressures arising from unsatisfied needs are, as we have seen, stronger now than they were before the crisis, a number of factors are increasingly undermining social cohesion and, *a fortiori*, the creation of collective identities. These include pervasive individualism and the weakening of the unifying power traditionally provided by religion, moral standards and trade unions. Of course, unemployment, especially when it is long-term, and the new poverty also play a role in destroying the social fabric.

Nevertheless, there is still fertile ground for truly dynamic communities, one in which most projects of the social economy are taking root at this time. Associations are growing apace here and taking on multiple forms in all Western societies. This recent growth is no longer an expression of strong collective identities but, rather, one of "partial" group awareness. The players are brought together by a common awareness of such requirements as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ssuming responsibility for the handicapped or the socially excluded, and immi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these issues, communities whose vision is strong but only partially shared by others are, through their individual projects, providing the basis for a social economy upon which they continue to build.

At the same time, if one examines current developments in certain older branches of the social economy, one cannot help but be struck by the weakening – even the disappearance – of our two conditions for developing the social economy. Obviously, the need for co-operatives and mutual societies in distribution, insurance, credit, and economic activities upstream and downstream of agriculture, has become far less pressing, to the extent that the same goods or services can be obtained on similar terms from traditional enterprises. Similarly, the collective identity of members has, on the whole, waned in consumer co-operatives, which today have tens if not hundreds of thousands of co-operators, while the clientele has diversified enormously and increasingly includes non-members.

In short, for certain traditional segments of the social economy the two historical conditions for the emergence and growth of the social economy are hardly ever present simultaneously. This helps explain developments in recent years. In sectors such as distribution, consumer co-operatives created in the XIX century or the early part of the XX century have experienced a very sharp decline, sometimes even disappearing completely. In other cases, the trend towards "coopitalism" has been the driving force. Globalisation and competition have brought so many pressures to bear that some large co-operatives have begun to adopt the dominant practices of their sector, such as increasing financial concentration, integrating groups that are not co-operatives and opening branches over which members lose complete control.



These trends obviously call into question the original identity of the enterprises concerned and the possibility of maintaining the specific character of the social economy once it has reached a particular size, especially when challenged by intense competition and the rapid concentration of capital.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suggest that it is precisely due to the two conditions discussed above that the social economy will make an original and significant contribution to society. Social economy enterprises can achieve this, on one hand, by moving into fields where basic needs are not being met adequately or at all by the traditional private sector or government and, on the other hand, by exploiting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ve endeavours which, like democracy itself, must constantly be nourished.

## CONCLUSION

We hope that our analysis of the two conditions has shed useful light on some of the most basic and traditional forces underlying the social economy, forces that mark its entire history. Obviously, many other factors affect the development and success of projects in the social economy. In particular, w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effective leadership in successfully carrying projects forward. Nowadays, these leaders are often referred to as "social entrepreneurs", rare individuals who are indispensable because of their ability, alone or as a team, to maintain the dynamism and economic discipline of the enterprise and provide project participants with leadership and a common social purpose. In other words, leaders must assure a well-balanced combination of and cross-fertilisation between the associative and entrepreneurial aspects of the project.

In addition, we hope that we have demonstrated the exceptional utility of the social economy concept in gaining an understanding of economic issues of increasing importance to modern-day societies. It puts the economic imperatives of the third sector back into their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and explains their historical importance. In this respect, every analysis undertaken within a social economy perspective revives the oldest and noblest tradition in political economy: the belief that economic activity must benefit the entire community.

## BIBLIOGRAPHY

- ABRAHAM A., BALAND J.-M. & PLATTEAU J.-PH. (1998), « Organisations locales spontanées dans un bidonville », Recherche en appui à la politique Belge de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CRED - Facultés Universitaires N.-D. de la Paix, Namur.
- AL-OMAR F. & ABDEL-HAQ M. (1996), *Islamic Banking: Theory, Practice and Challenges*, Oxford University Press, Karachi.
- ANHEIER H. & SALAMON L. M. (1998), *The Non-Profit Sector in the Developing World - A Comparative Analysi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 ANHEIER H. (1990), « Private Voluntary Organisations and the Third World: The Case of Africa », in ANHEIER H. & SIEBEL W. (eds.), *The Third Sector. Comparative Studies of Non-Profit Organisations*, W. de Gruyter, Berlin.
- ANHEIER H. & SIEBEL W. (eds.) (1990), *The Third Sector. Comparative Studies of Non-Profit Organisations*, W. de Gruyter, Berlin.
- ANMC/BIT-ACOPAM/WSM (1996), *Mutuelles de santé en Afrique. Guide pratique à l'usage des promoteurs, administrateurs et gérants*, Solidarité Mondiale, Dakar.
- APTHORPE R. (1972), *Rural Co-operatives and Planned Change in Africa: an Analytical Overview*, UNRISD, vol. 5, Genève.
- ARCHAMBAULT E. (1996), *Le secteur sans but lucratif - Associations et fondations en France*, Economica, Paris.
- ATIM C. (1995a), *En quête de l'autosuffisance: le cas des mouvements sociaux communautaires*, Wereldsolidariteit-Solidarité Mondiale, Bruxelles.
- ATIM C. (1995b), *Towards Better Health in Africa. A Comparative Study of Community Financing and Mutual Aid Insurance*, Wereldsolidariteit-Solidarité Mondiale, Brussels.
- ATTWOOD D.W. & BAVISKAR B.S. (1988), *Who Shares? Co-operatives and Rural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BELLONCLE G. (1993), *Anthropologie appliquée et développement associatif. Trente années d'expérimentation sociale en Afrique sahélienne (1960-1990)*, L'Harmattan, Paris.
- BEN-NER A. & GUI B. (eds.) (1991), « The Non-Profit Sector in the Mixed Economy », Special issue of the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vol. 62, nr. 4.
- BERNARD A., HELMICH H. & LEHNING P.B. (eds.) (1998), *La société civile et le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OCDE, Paris.
- BIRCHALL J. (1997),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Movement*,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 BUNDERVOET J. (ed.) (1987), *De coöperatieve beweging: Een nieuwe start?*, Acco, Leuven.
- CARDENAS G. (1983), *El sector de la economía social en el Perú*, Centro de estudios para el desarrollo y la participación, Lima.
- CARRIN G., PERROT J. & SERGENT F. (1993), *The Influence of Financial Participation on Health Care Demand: An Analytical Tool for Countries in Greatest Need*, WHO, Genève.
- CHRISTENSEN J.A. & ROBINSON J.W. (1989), *Community Development in Perspectiv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Iowa.
- COLACOT (1995), *Crisis de la salud y el rol de los sistemas solidarios y mutualistas en América Latina*, Bogotá, Colombia.

- COLLOMBON J.-M. & PARODI M. (1997), « L'économie solidaire a-t-elle besoin de l'économie sociale », *RECMA*, nr. 264.
- CONSEIL SUPERIEUR DE L'EMPLOI (1998), *Avis nr. 3 concernant l'économie sociale*, Ministère Fédéral de l'Emploi et du Travail, Bruxelles.
- CONSEIL WALLON DE L'ECONOMIE SOCIALE (1990), *Rapport à l'Exécutif Régional Wallon sur le secteur de l'économie sociale*, Namur.
- CRAIG J.G. (1976), *Multinational Co-operatives: an Alternative for World Development*, Western Producer Prairie Books, Saskatoon.
- DEFOURNY J. (ed.) (1988), *L'entreprise coopérative: Tradition et renouveau*, Editions Labor, Bruxelles.
- DEFOURNY J. (1992a), « Origins, Forms and Roles of a Third Major Sector », in DEFOURNY J. & MONZÓN CAMPOS J.-L., (eds.), *Economie Sociale - The Third Sector*, De Boeck, Bruxelles, pp. 27-49.
- DEFOURNY J. (1992b), « Histoire et actualité du fait associatif », in DEFOURNY J., LALOI N. J., (eds.), *Vie associative et fonctions collectives*, CIFOP, Charleroi, pp. 21-34.
- DEFOURNY J. (ed.) (1994), *Développer l'entreprise sociale*, Fondation Roi Baudouin, Bruxelles.
- DEFOURNY J. (1995), « L'avenir des pratiques coopératives dans un monde en mutation », in SEGUIN M.-TH., (ed.), *Pratiques coopératives et mutations sociales*, L'Harmattan, Paris.
- DEFOURNY J., BONIVER V. & RICHELLOT C. (1991), « Co-operative, Mutual and Non-Profit Organisations in the European Community », *Panorama of EC Industry*,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 DEFOURNY J., FAVREAU L. & LAVILLE J.-L. (eds.) (1998), *Insertion et nouvelle économie sociale, un bilan international*, Desclée de Brouwer, Paris.
- DEFOURNY J. & MONZÓN CAMPOS J.-L. (eds.) (1992), *Economie sociale - The Third Sector*, De Boeck, Bruxelles.
- DEFOURNY J., DEVELTERE P. & FONTENEAU B. (eds.) (1999), *L'économie sociale au Nord et au Sud*, De Boeck, Bruxelles.
- DESROCHE H. (1976), *Le projet coopératif*, Les Editions Ouvrières, Paris.
- DEVELTERE P. (1992), *Co-operative Development: Towards a Social Movement Perspective*, Centre for the Study of Cooperatives, University of Saskatchewan, Saskatoon.
- DEVELTERE P. (1993), « Co-operative Movement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Old and New Orientations »,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vol. 64, nr. 2, pp. 179-207.
- DEVELTERE P. (1994),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cco, Leuven.
- DEVELTERE P. (1998), *Economie sociale et développement*, De Boeck, Bruxelles.
- EMES NETWORK (1999),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as a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Targeted Socio-Economic Research for the European Commission, 1996-1999*.
- ESCOBAR J.S. (1997), « Religion and Social Change at the Grass Roots Level in Latin America »,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vol. 554, november, pp. 81-103.
- ESMAN M. J. & UPHOFF N. T., (1984), *Local Organizations, Intermediaries in Rural Development*,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 FAIRBAIRN B. (et al.) (1991), *Co-operatives and Community Development; Economics in Social Perspective*, Centre for the Study of Co-operatives, University of Saskatchewan, Saskatoon.

- FALS BORDA O. (1970), *Estudios de la realidad campesina: cooperación y cambio*, UNRISD, vol. 2, Genève.
- FAVREAU L. (1993-1994), « Mouvements associatifs et ONG à l'heure des partenariats », *Coopératives et Développement*, vol. 25, nr. 2.
- FAVREAU L. & LEVESQUE B. (1996), *Développement économique communautaire, économie sociale et intervention*, Presses de l'Université du Québec, Sainte-Foy.
- FULTON M. (ed.) (1990),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Canadian Society: Popular Institutions and the Dilemmas of Chang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 GENTIL D. (1990), *Organisations paysannes non-étatiques en Afrique de l'Ouest francophone*, Institut de Recherches et d'Applications des Méthodes de Développement, s.l., France.
- GENTIL D. & MERCOIRET M.R. (1991), « Y a-t-il un mouvement paysan en Afrique Noire? », *Revue Tiers-Monde*, XXXII, nr. 128.
- GUESLIN A. (1987), *L'invention de l'économie sociale*, Economica, Paris.
- HEDLUND J. (ed.) (1988), *Co-operatives Revisited*, The Scandinavian Institute of African Studies, Uppsala.
- HOLMEN H. (1990), *State, Co-operatives and Development in Africa*, The Scandinavian Institute of African Studies, Uppsala.
- HOPE K.R. & ST.-PIERRE M. (1983), « Ethnic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o-operative Socialism in Guyana: a Critical Assessment »,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6, nr. 4, pp. 505-516.
- HYDEN G. (1980), *Beyond Ujamaa in Tanzania: Underdevelopment and an Uncaptured Peasant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HYDEN G. (1988), « Approaches to Co-operative Development: Blueprint versus Greenhouse », in ATTWOOD D.W. & BAVISKAR B.S., (eds.), *Who Shares? Co-operatives and Rural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Delhi.
- ILO (1966), *Co-operatives (Development) Recommendation*, nr. 127, Genève.
- INAYATULLAH X. (1972), *Co-operatives and Development in Asia: A Study of Co-operatives in Four Rural Communities of Iran, Pakistan and Ceylan*, UNRISD, vol. 7, Genève.
- JACOB J.-P. & LAVIGNE DELVILLE PH. (eds.) (1994), *Les associations paysannes en Afrique: organisations et dynamiques*, APAD/Karthala/IUED, Paris.
- JACQUIER CH. (1988), « Les pratiques coopératives informelles dans le Tiers-Monde: un aperçu général », *Mondes en Développement*, Tome 16, nr. 61.
- JACQUIER CH. (1990), *Les coopératives et l'auto-assistance mutuelle face à la pauvreté urbaine dans les pays en développement*, BIT, Genève.
- JAMES E. & ROSE-ACKERMAN S. (1986), *The Non-Profit Enterprise in Market Economies, Fundamentals of Pure and Applied Economics*, Harwood Academic Publishers, London.
- JAMES E. (ed.) (1989), *The Non-Profit Organisation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Studies in Comparative Culture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JEFFREY H. (1986), *Marxism and Cooperativism, The Guyanese Proposal*, University of Wales, Cardiff.
- JÜTTING J. (1999), « Strengthening Social Security Systems in Rural Areas of Developing Countries », ZEF Discussion Paper on Development Policy, nr. 9, Centre For Development Research, Bonn.
- KI-WON SUH (1989), *Role of Government in Promoting Co-operative Development in Asia*, ICA, New Delhi, pp. 274-303.

- KOROVKIN T. (1990), *Politics of Agricultural Co-operativism: Peru, 1969-1983*,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Vancouver.
- LALEYE I.-P., PANHUYS H., VERHELST TH. & ZAOUAL H. (eds.) (1996), *Organisations économiques et cultures africaines*, L'Harmattan, Paris.
- LAMBERT P. (1964), *La doctrine coopérative*, Les propagateurs de la coopération, 3<sup>e</sup> édition augmentée, Bruxelles.
- LARRAECHEA I. & NYSENS M. (1994), « Les défis de l'économie populaire au Chili », *RECMA*, nr. 49.
- LAVILLE J.-L. (ed.) (1994), *L'économie solidaire - une perspective internationale*, Desclée de Brouwer, Paris.
- LELE U. (1981), « Co-operatives and the Poor: A Comparative Perspective », *World Development*, vol. 9, pp. 55-72.
- LOHMANN R. (1995), « Buddhist Commons and the Question of a Third Sector in Asia », *Voluntas*, vol. 6, nr. 2,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Sector Research,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 140-158.
- MANOURY L. (1996), « Emergence et organisation de ressources solidaires sur le territoire européen », Mémoire de DEA, Paris VIII, Institut d'études européennes, Paris.
- MAREE M. & SAIVE M.-A. (1983), *Economie sociale et renouveau coopératif. Définition et problèmes de financement*, Travaux de recherche du CIRIEC, nr. 83/07, Liège.
- MC CLINTOCK C. (1981), *Peasant Co-operatives and Political Change in Peru*,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MEISTER A. (1977), *La participation pour le développement*, Les Editions Ouvrières, Paris.
- MELNYK G. (1985), *The Search for Community: from Utopia to a Co-operative Society*, Black Rose Books, Montréal.
- MIFFLEN F.J. (1989-1990), « The Antigonish Movement: A summary Analysis of its Development, Principles and Goals », *Coopératives et Développement*, vol. 21, nr. 1, pp. 101-122.
- MIGNOT D., DEFOURNY J. & LECLERC A. (1999), « Un siècle d'histoire coopérative à travers les statistiques de l'ACI », *Annales de l'économie publique, sociale et coopérative*, vol. 70, nr. 1.
- MOODY J.C. & FITE G.C. (1984), *The Credit Union Movement: Origins and Development from 1850 to 1980*, Kendall/Hunt Publ., Dubuque.
- MUNKNER H.H. (ed.) (1989), *Comparative Study of Co-operative Law in Africa*, Marburg Consult, Marburg.
- NASH J., DANDLER J. & HOPKINS NS. (eds.) (1976), *Popular Participation and Social Change: Co-operatives, Collectives and Nationalized Industry*, Mouton Publishers, Den Haag.
- NOURRISSON P. (1920), *Histoire de la liberté d'association en France depuis 1789*, Sirey, Paris.
- NYSENS M. (1994), *Quatre essais sur l'économie populaire urbaine: le cas de Santiago du Chili*, Thèse de doctorat, Louvain-la-Neuve.
- PARODI M. (1993), « Le modèle de l'économie sociale face aux grands défis contemporains », *RECMA*, nr. 47.
- PERRET B. & ROUSTANG G. (1993), *L'économie contre la société*, Seuil, Paris.
- PLATTEAU J.-P. (1987), « La nouvelle économie institutionnelle et la problématique coopérative », *Cahiers de la Faculté des sciences économiques et sociales de Namur*, Série Recherche, nr. 79, décembre.

- POWELL W.W. (ed.) (1987), *The Non-Profit Sector*,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RAZETO L. (1991), *Empresas de trabajadores y economía de mercado*, PET, Santiago, Chile.
- SALAMON L. & ANHEIER H. (eds.) (1994), *The Emerging Sector. An Overview*, Johns Hopkins University, Baltimore.
- SALAMON L. & ANHEIER H. (1997),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A Cross-national Analysi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 SALAMON L., ANHEIER H. & ASSOCIATES (1998), *The Emerging Sector Revisited*, Johns Hopkins University, Baltimore.
- SANYAL B. (1994), *Co-operative Autonomy: the Dialectic of State-Movement Partnership Model. A study of India's National Co-operative Development Corporati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Genève.
- TOCQUEVILLE A. (DE) (1835),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édition 1991, Gallimard, Paris.
- TREACY M. & VARADI L. (eds.) (1986), *Co-operatives To-day: Selected Essays from Various Fields of Co-operative Activities*, ICA, Genève, pp. 357-376.
-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1975), *Rural Co-operatives as Agents of Change. A Research Report and a Debate*, Genève.
- VAN DIEPENBEEK W.J.J. (1990), *De coöperatieve organisatie - Coöperatie als maatschappelijk en economisch verschijnsel*, Eburon, Delft.
- VAN DOOREN P.-J. (1978), *Coöperaties voor ontwikkelingslanden*, Coutinho, Muiderberg.
- VERANO PAEZ L. (ed.) (1989), *La economía del trabajo*, Bogotá, Colombia.
- VERANO PAEZ L. (1994), *El mutualismo y la salud en América Latina*, Colacot, Colombia.
- VINCENT F. (1994), *Financer autrement - les associations et ONG de développement du Tiers-Monde*, IRED, Genève.
- WEISBROD B.A. (1988), *The Non-Profit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WIDSTRAND C.G. (ed.) (1970), *Co-operatives and Rural Development in East Africa*, The Scandinavian Institute of African Studies, Uppsala.
- WORSLEY P. (ed.) (1971), *Two Blades of Grass; Rural Co-operatives in Agricultural Moderniza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 YUNUS M. (1997), *Vers un monde sans pauvreté*, J.-C. Lattès, Paris.





---

CDI세미나 2011-O9

제1차 사회적경제연구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의 이해**

---

■ 발행자 : 박 진 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 주 소 : 314-140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 전 화 : 041-840-1211

• 홈페이지 : [www.cdi.re.kr](http://www.cdi.re.kr)

■ 인쇄일 : 2011. 3. 24

■ 인 쇄 :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